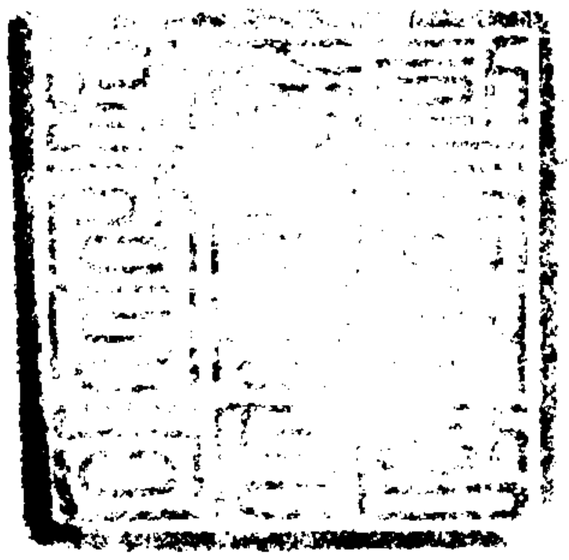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에 관한 硏究

(蘇聯事態 以前까지의 政治·經濟改革을 中心으로)



199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政策學專攻

崔　　文　　榮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李 鍾 受

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에 관한 硏究

(蘇聯事態 以前까지의 政治·經濟改革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Reform Policy of M. S. Gorbachev

199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政策學 專攻

崔 文 榮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李 鍾 受

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에 관한 硏究

(蘇聯事態 以前까지의 政治·經濟改革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Reform Policy of M. S. Gorbachev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政策學 專攻

崔 文 榮

崔文榮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1992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國　　文　　抄　　錄

1985년을 계기로 고르바쵸프 공산당 서기장은 레닌 이후 경직되어온 소련체제를 새로운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개혁정책이 행해지고 있었다.

고르바쵸프는 침체된 경제건설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신사고를 통해 국내개혁에 집중하고 국내개혁에 필요한 서방의 경제협력을 얻을 수 있는 외적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내적으로 소련경제개발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과 경제특구의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군축제안과 해외주둔, 소련군의 철수 등의 평화공세와 주변국가들과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개혁이었다. 경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주의적인 소유형태. 즉 사적소유를 위한 소유의 다원화, 다양한 소유형태들 간의 동등한 경쟁, 소유의 탈국가화 등이 보다 폭넓게 실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소련에서는 농업과 기타의 영역에서의 협동조합적 운영을 장려하고 있었으며, 임대제와 청부제, 개인기업을 부활시켰다. 또한 임차법, 소유제법, 국가기업법 등의 제정은 사회주의적 소유에 관한 시장사회주의 진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유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소속절차의 확대 및 불로소득의 증대, 급격한 인플레이션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사회적 소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본축적으로 이어지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치는 계속되는 경제부진과 민족문제, 그리고 보수파의 저항과 급진개혁파의 불만 속에서, 복수후보제 및 비밀투표제 도입 등의 개혁, 대통령제의 도입등 정부의 개혁, 그리고 다당제의 도입과 신정치강령의 채택등, 당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28차 당대회에서는 개혁안의, 강령선언이 관철되지 못하였지만, 당 지도부 개편에 있어서 보수파의 등장을 좌절시키는데는 성공을 했다.

한편,고르바쵸프는 개혁정책을 소비에트 체제의 전반적인 개혁과 재편을 겨냥한 혁명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또한 "위로 부터 혁명"과 "밑으로 부터의 혁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다.

개혁정치의 유형별 형태에 있어서는 장기간 계속되는 목표를 변화시키는 정책개혁, 정책결정이 절차를 변화시켜 능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 및 행정개혁이 있으며, 그리고 기존의 근간이 되는 정치.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구조 및 제도개혁이 있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은 시장과 자본주의의 경제매카니즘을 그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접목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나, 국유화된 사회주의경제가 다양한 경제모델과 결코 타협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경제적 합리성은 증대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정책결정이 항상 정치력의 행정 및 경영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갖는 한계이다.

그리고 고르바쵸프정권의 체제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는 소련사태 및 소연방해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이 주도하는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에 따르는 실천적 문제들이 논쟁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엘친정권의 경우 이들 목표를 위하여 정치.경제 등의 사회 각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창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3

第 2 章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槪觀 5

第 1 節　政治. 經濟의. 改革의. 歷史 5

第 2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대두배경 11

1.　國內的인 側面 11

2　國外的인 側面 20

第 3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內容 25

1.　Perestroika 25

2.　Glasnosti (開放. 公開性) 28

3.　Demokratia (민주화) 33

4.　Noboe Mishellenie 35

第 3 章　고르바쵸프의 改革政治 39

第 1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治의 基調 39

1.　Perestroika 39

2.　새로운 思考 40

3.　體制改革의 方向 41

4.　人事改革一脫 브레즈네프 人事 43

第 2 節　고르바쵸프의 政治改革 44

1. 소비에트 代表制度의 改革 44
2. 大統領制의 導入과 政府의 改革 47
3. 新 政治綱領의 採擇 과 黨의 改革(人間的 . 民主的
社會主義의 志向) 53
第 4 章 고르바쵸프의 經濟改革 59
第 1 節 經濟改革政策의 特徵 및 內容 59
第 2 節 제12차 5개년 計劃 (1986-1990)의 主要目標
및 成果 65
第 3 節 고르바쵸프 經濟改革의 장래 69
第 5 章 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의 特性과 限界 73
第 1 節 改革政策의 特性 73
第 2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限界 77
第 3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展望 79
第 6 章 結 論 86
參 考 文 獻 89
Abstract 94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20세기 대변혁의 하나인 소련의 개혁은, 1985년 3월 11일 고르바쵸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래 , 1986년 2월에 제 27차 전당대회에서 개혁정책의 중심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승인하면서, 1987년 1월 당중앙위원회 총회 이후, 정치·경제·외교분야 등에서 개혁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소련의 개혁은 고르바쵸프 이전에도 시도된 바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고 그 원인을 전면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구하게 되었던 것이 고르바쵸프가 시도한 소련의 개혁이며, 그 개혁정책은 스탈린식 전체주의가 초래한 역기능을 극복하고, 체제 내부로 부터의 활성화, 생산성제고, 인민대중의 자발성 도모를 위한 총체적 "再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르바쵸프 등장이후 소련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ka:재편, 개혁)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공개성, 개방)이라는 전반적 개혁노선의 충격에 의해 동구와 소련의 체제와 사회주의 이념의 변화가 있었으며,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현체제로서 존립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對內外的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사회주의 전체가 개혁의 열병을 앓았다는 것이다.

소련의 개혁은 사회주의의 종인이나 최후의 제국주의 해체도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발전적 새단계 등으로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던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고르바쵸프의 개혁은 처음부터 정해진 경로에 따라 진행하기에는

소련의 사정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노정되면서 소련이 지금까지 신용해 온 이데올로기의 포기, 당과 국가의 분리 등,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소련의 근본적인 원칙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좌충우돌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그의 개혁은 내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요약되고 외적으로는 신사고를 통해 국내개혁에 필요한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내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도입, 자유선거와 언론의 자율성 부여, 집회의 보장등 제반 경제적·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 조치가 채택되고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군축제안과 세계문제에 있어서 평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한편, GATT등의 가입시도로 서방경제에 접근하였다.

고르바쵸프가 집권한 이래 서방언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문과 잡지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졌던 관계로 그 영향과 관심도는 전세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미 지난해 1991년 6월에 한·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10월에는 한·소 수교를 맺게 되었었다.

우리가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접촉과 관계개선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소련의 현실과 소련에서 전개된 개혁정책의 실상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本 論文은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1985 - 1991년, 소련사태 전까지)의 소련에서 진행되었던 對內 개혁정치의 정치적 , 경제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쿠테타 이후의 옐친의 과도체제에 대한 장래를 전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本 論文은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接近하기 위하여 研究의 範圍를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부터 1991년 8월 蘇聯事態 직전까지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비록 소련사태에 의해 共産主義體制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이전의 상황을 研究의 背景과 시점으로 삼아 그 內容을 論究토록 하였으며, 內容面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로 상징되는 改革政策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의 政治와 經濟의 개혁에 대한 변화를 집중 分析하였으며 改革政策中 對外關係와 軍事部門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本 연구에서는 改革의 전반적인 性格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주요 動因인 경제의 침체와 그 극복에 있다 봄으로 , 개혁의 주요의미 역시 經濟的 要因을 가장 중시할 것이다. 따라서 改革의 또다른 주요 내용인 政治的 要素들을 經濟的 改革노력과 관련지어 그 意味를 分析한다.

本 論文의 제2장에서는 소련개혁정책의 政治, 經濟, 개혁의 역사와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의 혀성배경을 국내적인 측면의 정치적 경재적 사회적의 세 분야와 국외적인 측면의 對外政策과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추이를 두가지로 분류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이루어지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찌, 데모크라찌아, 노보에 미셀레니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에 기초한 개혁은 사회전반을 통해 개방과 민주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혁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조와 정치개혁을 복수후보제및 비밀투표제 도입등의 개혁, 대통령제의 도입등 정부의 개혁, 그리고

다당제의 도입과 신 정치강령의 채택등, 당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던 소련경제에 경제개혁 부분을 특징과 경제개혁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계획 년도 별로 구분 지어 論議하고 있으며, 5개년 경제개혁이 목표와 성과, 그리고 장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고로바쵸프의 대내개혁정책의 제문제, 즉 고르바쵸프가 소련의 對內改革政策의 제문제, 즉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성과 한계 그리고 소련사태 후의 과도체제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며 論議를 하겠다.

제 6장에서는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의 총괄적인 내용으로 결론을 맺기로 하겠다.

분석의 대상은 고르바초프 개혁정책 기간동안 제정된 각종 법률과 고르바쵸프의 선언문, 연설문 그리고 그의 저서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문서가 발표된 시기의 國內外的상황과 관련하여 개혁정책의 주요 內容, 意味, 그리고 政治, 經濟의 改革에 따른 變化와 展望 및 그 現況을 分析·檢討한다. 특히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이 소련내외의 정책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면서 그 영향과 밀접히 관련된 한국내에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과 관련하여 많은 硏究物들이 출간되고 있다. 本 硏究는 이러한 국내의 기존 硏究物들도 적극 활용하기로 한다.

第 2 章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槪觀

第 1 節 政治. 經濟의. 改革의. 歷史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은 新經濟政策(New Economic Policy : NEP)으로서 혁명 반대세력 진압과 인민들의 기아를 극복시켰으며, 스탈린은 농업의 집단화와 중공업 우선정책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후르시쵸프는 탈 스탈린화와 개혁 도중 하차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브레즈네프는 신경제제도를 경제개혁이 집권 후기에는 경제침체의 위기에 처해졌다.

1. 레닌의 新經濟政策 (NEP)

1981년 5월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간섭과 내란에 의하여 국민경제는 급속히 전시화되어 공업과 생산수단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도 국유화 되었으며, 1921년 외국으로부터의 간섭과 내란이 종식되어 신경제정책이 시작되었을 때는 레닌도 신경제정책이 자본주의로의 후퇴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나, 신경제정책은 자본주의로 부터 공산주의로 진행하는 길이고 정책이었다.

1921년 3월, 러시아 소비에트경제는 신경제정책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 NEP란 전시공산주의기의 극단적인 전시경제통제정책(①.전공업의 국유화 , ②. 곡물매매의 국가독점 , 동민에로의 잉여식량의 할당징발제 , 따라서 곡물에 관한 사적상업의 금지 , ③. 일반노동의무제도)를 대폭으로 완화하고 현물세제도에 의해서 농민에게 미리 정해진 정액세액 이외의 식량의 자유처분, 따라서 곡물의 자유판매를 인정하고, 중소기업의 국유화를 해제하고, 사적자본주의를 일정한 한도내에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생산과 상업의 자

유를 인정함으로서, 간섭전과 내란에서 피폐된 국민경제의 부흥, 생산력의 발전을 구하는 현실적인 정책이었다.[1] 동시에 신경제정책은 장기전망적인 정책구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농민과의 동맹에 의해서, 또 국가자본주의적인 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레닌적인 사회주의 건설이 길이며, 방법이고 정책이기도 했다. 또한 정권을 잡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 농민계급과 동맹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채용된 전과도기 경제정책의 한 형태로서, 스탈린 정책과 대조를 이루며 사고나 사상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2. 스탈린의 농업집단화와 중공업 우선정책

스탈린은 1928년 농업과 공업에 있어서 신노선을 추구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울람(A.B. Ulam)교수는 경제적 요인으로 , 戰前수준보다 더 진전하기 위한 공업화 정책을 채택하여 농민을 전부 집단화 시켜 소기의 생산목표달성과 식량공급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 스탈린은 현 정권에 대한 농민의 지지도를 의심하여 농민을 전무 집단화 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농민의 영향력을 없애버렸다. 군사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공업화 수준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소련의 국가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등 세가지를 들고 있다.

1929년에는 강제적인 집단화가 시작되었다. 농민들의 집단화 방법은 소포즈(Sovkhoz)라고 하는 국영농장과 콜호즈(Kolkhoz)라는 협동조합 농장(약칭

---

1)그러나 그는 이를 Marx 이론으로 합리화 시켰다.
조범순,"고르바쵸프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 (경남 :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88. pp.7~8)

집단농장)이었다.

1927년 12월에 열린 제15차 당대회는 생산성이 낮고 소규모화된 농가의 영세성에 대한 대책으로 부농반대의 투쟁과 농업집단화의 방침을 내세웠다.

1928년초 이후, 스탈린은 곡물조달에 대한 지령을 내렸으며, 형법 107조 , 즉 어떠한 투기를 꾀했을 때도, 재산몰수를 포함한 3 ~ 5년의 유형을 꾀한다는 조항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동되었다.

스탈린도 직접 서부 시베리아와 우랄지방에 가서 곡물의 강제지발을 직접 지도했다. 이때의 당기관의 전담당원 3,000명이 농촌에 동원되었으며 이때의 강제조달 방법은 "우랄 시베리아 방식" 이라고 불리우고 이것이 소비에트사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반란, 소요가 일어났으며, 이해 여름부터 식량의 배급제가 실시하게 되었다.

1928년 11월에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최고국민회의의장인 바레리안과 퀴뷔쉐프가 주장했던 공업화를 당의 주위원회 서기들이 결집하여 공업화의 가속화가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와같은 공업화의 가속화는 부농배격, 곡물의 강제조달, 그리고 농업집단화가 우파공격과 함께 세트가 되었다.[2] 농업집단화의 성공적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 2500만호의 소포즈, 콜호즈, 기계트럭 스테이션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주의적 농업시스템을 세웠으며, 둘째 , 2500만호의 영세농가 집합체를 약 25만호의 콜호즈에 통합함으로써 시장을 향하는 곡물집합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1934년 제17차 당 대회에서 스탈린은 국영농장을 더 소규모로 나누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 이후 콜호즈의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농업의 집단화를 강행함으로써 농촌에 대기구와 함께 처참한 경지에 달했으며, 원인은

---

2)조범순 , 상게서 , pp.11 ~ 12

정부가 농작물을 수탈하여 도시인과 군대에 공급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집단화에 필요한 농기계의 생산은 중공업발전과 함수관계가 있으며, 제1차 5개년 계획의 1차적 목표는 저축을 동원하여 중공업을 육성하는데 있었다. 그 성과는 공업생산은 2배 이상 특히 석탄, 석유, 전기, 철강 등이 증대되고, 스탈린그라드에는 트랙터공장이, 드네프르(Dnieper)에는 수력발전소가 들어섰으며, 쿠즈네츠그에는 제철공장이 우랄지역에는 기계체조공장과 화학공장이 활발히 가동되어 전세계는 경악의 눈빛으로 주시하게 했다.

스탈린 시대는 일종의 소련사회라는 체제구축 및 전후복구로 특징지워지는 것으로서 개혁보다는 국내체제의 정비와 對 나치투쟁에의 국력집중으로 특징지워진다고 볼 수 있다.

3. 후르시쵸프의 改革政策

후루시쵸프는 권력투쟁의 와중에서도 경제면은 물론 정치.대외정책 면에서 개혁과 변화를 모색했다.

말렌코프. 후루시쵸프. 베리아의 3두체제는 베리아의 숙청으로 무너졌고, 후루시쵸프가 당 제1서기라는 칭호와 함께 말렌코프와 후루시쵸프의 양두체제로 굳어졌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정책및 권력투쟁이 전개되어 말렌코프는 소비재 생산 우선정책으로 중류시민층 및 도시관료층의 환영을 받았으며, 후루시쵸프는 소련에 있어 농업정책은 관심을 모아야 할 분야임을 언급하여 농업생활에 있어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제20차 당대회에서 미코얀이 스달린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한데 이어 대회 마지막날인 2월25일, 추루시쵸프는 스탈린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그리고 그의 전제정권에 대해 신랄하게 공격을 가했다.

후루시쵸프의 스탈린 격하에 대해 러쉬(MYrom Rush)는 스탈린의 독재체제에 대한 회의 때문이라 하고, 레오날드는 후루시쵸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오다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표면화시켰다고 한다.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후루시쵸프는 스탈린의 자본주의 포위론과 전쟁불가변론을 비판하고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제창했다.

후루시쵸프가 당대회에서 평화공존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내용을 보면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흡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첫째, 혁명의 역사는 세계적인 규모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둘째, 공산주의는 수세에서 공세로 옮겨졌다. 세째, 제국주의와의 최후의 대결은 될 수 있는 한 뒤로 미루는 평화공존이 필요하다. 네째, 막다른 틈을 약소국이나 식민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후루시쵸프와 그 체제는 평화공존의 원리를 , 첫째,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평화공존, 둘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경제경쟁, 세째, 이데올로기의 지속의 세가지 연결된 형태를 보고 있다,.[3)]

후루시쵸프의 스탈린 격하는 중.소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었으며, 스탈린과 통치패턴이 같은 모택동에 의해 그의 계획은 많은 차질을 초래했다.

그리고 중.소 분쟁등 이념적인 면에서 중공으로 하여금 소련을 수정주의자로 규정한데 반해 소련은 교조주의자로 못박게 했으며, 이 논쟁은 결국 후루시쵸프 와 모택동 간의 개인적인 바탕으로 까지 확대되어 갔다.

이처럼, 중. 소간의 이념분쟁은 후루시쵸프의 실각에 까지 격렬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나가다 다소 잠정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1965년 월남전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의 의견차이는 또 다시 표출되었다.

---

3)정치교육연구회편, 「공산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 : 문우사, 1983. pp.153 ~154

4. 브레즈네프의 신경제제도.

새지도층은 후루시쵸프의 반 스탈린적 입장도, 또는 그와 반대되는 스탈린의 복권이란 입장도 취하지 않고 그 양자를 절충하는 길을 걸었으며, 정통성의 염원을 떠나서 후루시쵸프도 스탈린도 아닌 레닌에게 두었다. 그러면서 탈 후루시쵸프의 길, - 이것을 Mcneal(de-Khrushaehevization)이라고 했다.- 을 걸었다.

1965년 3월에는 농업계획을 세워 농업발전의 장애를 극복하는 기초를 구축했다. 이것은 농업투자의 증가, 농산물의 국가조달목표를 절하 콜호즈 부담의 감면, 잉여 농산물 가격의 인상, 임금 인상등을 통하여 농업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1965년 9월에 발표한 코시킨의 공업개혁계획은 지방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그 계획과 지도를 중앙에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개의 기업에는 더 많은 자주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후루시쵸프 말기 부터, 점차 떨어지는 소련의 공업성장율을 늘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여러차례의 이론적 토론과 제한된 실험이 있었으며, 이때 나타난 것이 리베르만의 경제이론이었다.

1962년 「프라우다」지에 발표된 그의 논문 「계획과 이윤 및 상여금」은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의 요소를 시장경제의 지표에 바탕을 둔 경제계획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 리베르만 방식에 따르면 생산에 관한 결정권을 공장경영자에 넘기고 공장 경영자는 각 생산품에 대한 요구의 바탕위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71년 제 24차 당대회(24th Congress of Cpsu)가 열리기 전의 중앙위원회 총회(Central committee Plenum)에서 농업정책의 실패책임을 물어 코시킨을 축출한 뒤 당권력을 장악한 브레즈네프는 경제개

혁을 보다 가속하하여 생산연합체(Production Association)운동 등 일련의 개편작업을 대내적으로 추진하였다. 생산연합체란 동종의 기업 및 관련분야 연구소를 행정적 단위로 통합하여 생산성과 자율성및 기술혁신을 촉진 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브레즈네프 말기에는 소연방 내각 직속에 경제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일련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소련경제가 안고있는 통제경제적 한계에 부딪쳐 큰 시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브레즈네프- 코시킨의 이같은 경제면에서의 개혁정책과 관련하여 정치면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정치면에서 당과 정부관료들의 시책으로 이후 소련정치의 무사안일 및 노인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중. 소 관계에 있어서도 '탈후루시쵸프화'를 추구했다. 모택동 사상에 대한 솔직한 비판자였던 세계공산당 대회를 소집하여 중국공산당을 파문하려 했던 후루시쵸프와는 달리, 1966년 상호비방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세계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중국공산당을 축출하려는 후루시쵸프 공식이 모스크바에 다시 나타났다.[4)]

第 2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대두배경

1. 國內的인 側面

레닌(Lenin)이 주도했던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의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는 위대한 진보적 업적 및 다방면의 거대한 발전과 더불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추세가 나타났다.

---

4)김학준, 「소련정치론」, (서울 : 일지사, 1987), p.172

정치 분야에서는 관료주의가 나타났으며 대중생활에서 인민의 적극적인 역할이 평가절하됨으로써 무기력이 뒤따랐다. 국가 경제면에서는 과도한 중앙통제 경제 및 평등주의의 폐단이 발생하여 고도 기술산업의 낙후현상이 현저해졌으며 생산성, 효율성의 저하와 소비재 상품의 부족문제가 야기되었다. 사회부문에서는 주택문제, 알콜문제, 후생복지등 각 분야의 질적, 양적, 개선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소련을 소련체제의 위기, 즉 순환적인 경제적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이념 문화의 차원에 걸친 소련체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1985년 3월에 등장한 고르바쵸프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글라스노스찌(Glasnosti: 개방), 데모크라찌아(Demokratia:민주화), 그리고 노보에 미셀레니에(Noboe Mishellenie:신사고)[6] 등 일련의 개념에 입각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의 배경은 현재 자본주의는 여전히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소련과 동구제국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생겨난 모순의 심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다. 社會主義下에서 상품 화폐관계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일정한 경제적 경험의 이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社會主義的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관료주의와 비민주적 경향이 강화되었는데, 참여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발전의 가장 중요한 객관적 법칙성의 하나라는 것이다. 즉 고르바쵸프가 계속해서 브레즈네프(Brezahnev) 정책을 수행한다면 소련은 완전한 경제적 파탄에 이를 것이라

---

5) M.S. Gorbachev. "재편과 단간부정책에 대하여: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1월 총회보고,「 중소연구 」, 11권 2호, (한양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1987), pp266-278.

6) M.S. Gorbachev, Perestroika, (New York : Haper & Row publishers, 1987)

는 인식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1985년 3월에 고르바쵸프가 당서기장에 선출되었을 당시 소련의 경제적 상황은 서구나 미국은 물론 주요 일부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 등의 개발도상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다. 이것이 페레스트로이카였다.[7]

이처럼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경제적 침체를 재생시키는 유일한 선택이며 근대적 공업국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이러한 개혁동기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초강대국인 소련보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해 가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이 생활수준 역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특히 소련이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자부심에 비추어 그에 따르는 위기감은 그 만큼 클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현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은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8]

고르바쵸프 자신도 그의 저서에서 개편은 야심에 찬 개인이나 지도자 그룹이 일시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 발전이 심화되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개편을 지연시키게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국내사정은 악화될 뿐이고 미래는 심각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9]

---

7) 프리마코프의 「 현대 소련의 변혁이론 」, 편집부편역, (서울 : 도서출판 솔밭 1989), pp. 10-14).

8)조순구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관한 연구", 「 전북대학교 사회가학 연구 」 제16집 (전북 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9) p. 136

9)송택구, 조범순 공저. 「 현대 소련정치론 」, (서울: 형설출판사. 1988) pp. 278~279

1) 經濟的 危機

고르바쵸프는 국내정치의 재건을 내외정책의 지주로서 우선되어야 한다고 기회 있을때 마다 강조하고 있다.[10] 소련경제는, 1978~1982년에 전례없는 심각한 저 성장을 경험했다. 투자부족과 노동력 부족의 현실화 대규모적 미완공 공사의 현저한 증가.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 개발이 개발비의 고갈. 수송망의 미비. 농업의 연속적인 부진. 군사비 지출의 증대 등 구조적 복합적인 제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경제부진이 더욱 깊어졌다. 경제개혁의 목표 미달성은 혼하게 되었고, 생산국민소득과 공업 총생산고의 매년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되었다. 소련이 경제·정치·사회의 오랜폐단들이 표면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앙통제적 경제체제는 경직성과 비능률만 눈에 띠게 되고 관료조직의 부패와 비리, 무사안일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엉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했다. 소련의 경제운용은 주로 스탈린(stalin)경제모델과 외연적 경제성장모델에 의존되어 있다.

前者는 그 경제조직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고 後者는 소련경제 성장의 성격과 원천을 얘기한다. 명령적 경제(command economy)라고 일컬어지는 스탈린식의 경제모델은 주로 행정적 활동과 규제에 얽매여 왔고 자체 제어능력과 자기 실행능력을 결하고 있다. 소련경제의 양적 팽창을 의미하는 외연적 경제성장 모델은 어떤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산업구조적 현상이지만 소련경제가 갖는 특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이러한 성장이 일단은 1970년대 초반부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질적개선의 必要性이 커졌다.[11]

---

10)M.S.Gorbachev. Perestroika. op.cit. p.3
11)조범순,"고르바쵸프 (M.S.Gorbachev)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

스탈린적 경제모델과 외연적 경제성장모델의 종합은 중공업과 기초 경공업이 주를 이루는 1970年代 初까지 第一産業革命시기에는 노동력과 원료가 풍부한 소련에서 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이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존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능률적인 틀을 제공하지 못했다.

기술의 낙후성과 경제침체는 소련의 경제체제를 경직성과 선진국에 대한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한 반면, 새로운 산업혁명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기술혁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고질의 상품경제를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자각한 직접적인 표현은 200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포함한 5個年改革(1985~1990)에 잘 나타나 있다. 2000년까지 국민총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키며 개인당 국민소득은 60~80% 증가시키며, 노동생산성은 140%를 15年 이내에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소비의 증가는 80~90%, 서비스 양은 110% 증가를 예상하고, 당강령은 15年內 이내에 소련의 모든 기구가 自家나 아파트를 소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12]그러나 이같은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련경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 당면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13]

첫째는, 鈍化된 生産率이 문제이다.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도 이래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1983년도의 성장률은 3.1%에 불과했다.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률 역시 같은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그와같이 둔화된 원인은 1960년대 이래 출생률의 현저한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부족. 석유자원

학위 논문, 1988년 8월) p.24

12)이승희, "페레스트로이카의 발전단계", 「 통일문제연구소 」 1권 3호, (서울: 국토 통일원, 1989) pp.192~193

13)"1986~1990年間 경제5개년 계획 주요지침", Pravda, 9,Nov, 1985 : 당강령, Pravda, 26, oct, 1985 : 이승희 상게논문, p.193에서 재인용

등의, 채굴비 상승 및 양의 감소와 자원의 집중투입에 의한 성장률 향상의 비효율성을 노정하므로, 인적자원의 대량투입은 더이상 성장률 증가의 원인이 되지 못하는 자본의 효율성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소련경제에 있어서 농업은 전체 투자와 노동력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극히 낮으므로서 생기는 농업의 낙후성, 대외무역의 침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경제체제의 비능률성 문제이다. 소련경제의 비능률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은 즉 건설공사의 설계잘못이나, 산만성, 지연 등에서 오는 자본투자의 낭비, 유휴 기계설비의 증가, 생산설비의 낮은 가동률,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노동력의 이동,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세째는, 불합리한 科學技術政策의 문제이다. 과학기술혁신이 부재한다는 점은 소련경제를 침체로 이끈 주요 원인이자 오늘날 소련 지도층에 극복하고자 하는 주요 단면이다. 네째는 ,과도한 軍事費 지출의 문제이다. 1982년에 전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총액수는 약 7,000억불로서 전세계 GNP의 6%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 소련이 14%, 북대서양조약기구 諸國이 3~4%,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는 그보다 약간 밑도는 액수를 사용하고 있다.[14] 경제적 견지에서 보면 이것은 생활수준을 낮추게 되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켰다. 다섯째, 構造的 單一主義 문제, 소련이 경제를 일반적으로 중앙통제적 경제체제로 지침하고 있다. 상부조직이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한 가운데 경제적 결정을 내리고 하부조직은 오로지 중앙의 명령을 충실히 집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체제는 명령경제로서 독특한 경제체제를 형성한다. 이들 속성은 상호간의 변화를 거부하는데 이러한 중앙통제적 경제체제가 소련경제를 침체의 국

---

14)조범순, 전게서, pp. 25~31

면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경제는 1970년 중반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政治的 危機

소련체제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고르마쵸프가 정치개혁을 추진하게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소련이 産業化 過程을 겪으면서 일고 있는 당 관료지도층을 포함한 엘리트 구성상의 변화이다. 노멘클라투라(Nomenjlatura)[15]로 지칭되는 소련엘리트는 6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기 보다는 개혁과 現代化的 속성을 지닌 기술관료(Technocrats)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30년대의 대숙청 기간에 스탈린에 의해 승진된 구세대가 물러나고 스탈린 사후에 정치적으로 성장한 스탈린 소련개혁의 이전에는 언제나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속성이 이데올로기파와 기술관료층간의 세력경쟁이 있어 왔다.

러시아 혁명이후 소련은 스탈린, 후루시쵸프(Kurushchev), 브레즈네프라는 통치자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소련식 정치체제를 일당독재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레닌이나 스탈린, 후루시쵸프, 브레즈네프 치하의 소련정치체제에 적합한 표현이다. 1964년 후루시쵸프의 실각에 기반을 두고 출범한 브레즈네프는 그 반동으로 정권의 초기에 민주집중제의 원리에 따른 집단지도체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의 이런 지도방침은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더라도 그 이전의 스탈린이나 후루시쵸프 시기에 비해 민주적인 정책결정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시에 앞서 거치는 타협과 정책이행에 대한 관료들의 지지기반 확보, 책임범위의 명확화와

---

15)J>F>Dunnigan, How to aMadke War, (New York : Qyill, 1983 p.348)

안정화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당 및 국가관계 실무자들의 참여. 기회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정치·경제· 과학· 기술 등 광범위한 정보가 당의 위계체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구하여졌으며 정책결정과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다 완전하게 이용되었다.[16]

이러한 변화들을 관료의 지위와 이익을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즉 브레즈네프는 정치 엘리트에 대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직위를 보장 해 줌으로써 소련의 엘리트들은 고령화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소련정치는 보수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브레즈네프 통치의 유산으로 남겨진 소련 정치체제에는 엘리트들이 당·정관료등 모든 공직에서 장기간 머물게 되었으므로 무능력과 타성, 심지어는 부패를 낳고 보수화 되었다.[17] 결국 이러한 소련의 보수체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혁신을 억압하고 결국에는 병과 죽음으로써만 그 임기를 끝내는 노인정치로 퇴화하고 말았다. 이러한 퇴화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3년안에 발생한 3명의 현직 서기장의 죽음이다.

3)社會的 危機

후루시초프가 주도한 1950년대의 개혁이 스탈린의 극단적인 독재, 공포정치에 대한 반동이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사회적 침체와 무력감, 무사안일주의,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가치의 타락, 약물중독, 범죄의 증가 등에 대한 반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사회적 침체와 경제성장이 감소로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Marxism-Leninism)를 회생시키고 강화하려는 目的아래 대중의 지적, 문화적, 사회적 활성화를 기하면서 경제에 새

---

16)Bohadon Harasymiw , Political Elite Recruitment in the Soviet Union(London : Maacmillan, 1984) p.493 : Michael Voslensky, LA NOMENKLATURA,홍순호 옮김. 「노멘클라투라」(서울: 평민사.1982.pp.934) 여기에서 미하일 보스렌스키는 노멘클라투라를 소련과 동구공산권 국가를 지배하는 특권계급이며 권력과 물질적 행복을 마음대로 누리는 폐쇄적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송택구.조범순, 전게서. pp.150~151

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사회를 재구성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소련사회의 근원은 어디서 부터 시작 되었는가?

바로 스탈린시대 부터이다. 스탈린은 정부를 통제할수 있도록 조직된 당기구를 국가관료제도와 합병 시켰다. 이 합병의 중요한 결과는 당 기구의 변혁이다. 당기구는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고 국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료제도의 부속물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국가-경제를 축으로한 연결망들을 꽉 죄었던 통치의 틀이었다.이틀은 상당한 정도로 견고해졌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을 달성하고 자기평가와 자기찬양을 독점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다,비록 스탈린 사회에는 많이 약화되긴 하였지만 이 틀의 핵심은 그대로 잔존 하였으며 주요 국가경영 메카니즘(Mechanism)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관료독단주의로 번성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자체는 이들에 얽매이는 형태가 되었다. 이같은 지배적인 틀은 사회발전과 중요한 사회 구조상의 요구조건및 소집단들의 혼란을 무시했다. 동시에 자발적인 많은 사회단체들을 봉쇄하였으며, 성장하는 사회에 있어서 피드백(feed back)과 자원들을 스스로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나치게 과대한 국가와 지나치게 축소된 사회의 자율성은 분명히 제반가치의 광범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직업에 대한 불만족, 실망과 좌절에 빠진 청년들, 냉소주의와 이기주의 심리적및 범죄적 일탈. 음주와 마약복용등의 많은 문제들은 국가가 처리할 수 없거나 때때로 관심밖의 일로 남아 있었다.[18]이처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가 소련 내의 다방면에서 노출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노출된 제문제가 종래의 방법으로 완화 하거나 부분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들 제문제를 위기로 파악하였다. 고르바쵸프가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18)문수언,"고르바 초프 세대의 등장 :소련 지도자들의 배경 분석 " :『중소연구』 10월2호,(한양대학교 중·소문제 연구소,1986)pp10~11

필연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

2 國外的인 側面

蘇聯은 1981년 2월 제26차 당대회를 브레즈네프시대를 말기에 이르기까지 고질화된 中.蘇對立, 美國과의 끝없는 군비경쟁,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세계여론의 비난, 폴란드 사태에 따른 동구권 동요의 문제, 농업부진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군비증강의 어려움등 많은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 이는 군비강화를 통한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브레즈네프의 "平和共存論"이[19]결과적으로 소련의 대내외정치를 동맥경화적 重病에 빠지게 했음을 시사한다.

이같이 브레즈네프 시대 말기의 동맥경화증적 대내외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고르바쵸프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혁의 대외적 배경으로는 국제정세와 이에 따른 소련 외교정권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신냉전(New cold)에서 신데탕트(New Detente)시대로 돌입하게 된 국제정세를 개혁정책은 현대세계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20]

첫째로, 현대세계의 통일성이라는 문제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더욱 더 커다란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 통일성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다. 인류의 절박한 문제들은 고립되거나, 국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류생존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다. 핵전쟁의 위협, 생

---

19)M.S.Gorbachev. OP.cit,pp.6~10 ,지충남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에 관한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8) p.14 재인용

20)「소련.동유럽 총람」, (서울 : 극동문제 연구소, 1989) p.279

태계 및 에너지 문제 등 일련의 인류생존의 문제는 절박한 국제문제로 현상화되고 있다. 핵대립이 적화에 따른 인류문명의 멸망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인류생존의 문제 및 평화와 안전이 확보. 유지라는 문제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세째로, 오늘날의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제반 문제들을 해결되기 위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경제, 정치, 과학, 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건설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다음의 국제정세의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했으며 소련 외교정책 환경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80년대에 세계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킨 가장 커다란 요인의 하나는 과학커뮤니케이션(C0mmunication), 정보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 변화이다.[21]이런 革新的變化는 오늘날 선진공업국가에서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최첨단 기술의 대외유출을 금하고 있는 보호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소련은 최첨단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 고도로 치밀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을 허용하는 유연한 풍토와 상호간의 치열하고 자유스러운 경쟁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스러운 풍토와 경쟁이 소련사회에는 결여되어 있다.

신냉전 상태의 지속은 세계적인 반핵 평화운동을 고양시켰다. 1984년에 절정에 달한 서유럽 각국의 반핵운동의 확산은 이후 중거리핵무기(intermediate - Range Nuclear Forces) 협정을 이끌어 낸 주요한 동기가

---

21)프리마코프외, 전게서 pp. 6~14

되었고, 중국은 1986년부터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질랜드(New Zealand)정부의 롱이 수상은 핵을 적재한 것으로 여겨진 미군함의 기항을 거부했는데, 이것은 호주·뉴질랜드의 반핵시위 확산과 더불어 소련측을 고무했음이 틀림없다.[22]

또한 반전운동의 확산이 적정에 달했을 때 반전운동을 위한 정치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었다. 외교협상에 구애받지 않고 각국 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반전운동은 전례없는 엄청난 대중동원 능력을 보여주었다.[23]

다음으로, 소련에게 불리하게 전환된 힘의 역학관계를 들 수 있다. 1980년대의 군사력, 경제력, 사회적 안정의 균형 등을 포함시킨 힘의 역학관계를 70년대 초기와 비교하면 군사력의 균형만 변화되지 않았을 뿐, 경제적, 사회적 안정의 균형은 소련측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전환되었다. 또한 소련의 이미지(image)와 대소접근에 관해서 서구와 미국간의 격차가 널리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서구는 유럽지역에 주된 관심을 갖고 동지역에 대한 소련의 행동여하에 다라 소련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을 매우 거추장스러운 이웃으로 보면서도 어쨌든 이웃으로서 만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서구보다는 훨씬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소련을 對抗相對내지는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4]

현 국제정세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요소는 경제와 군사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를 소련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베리아 개발이 중요성이 그 만큼 커진다는 의미이다. 소련은 개발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시베리아를 개발하지 않는 한 세계적인 군사

---

22)송택구.조범순, 전게서. p.101
23)홍현기,「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서울:도서출판 태백)1988. p.61

24)Ernest Mandel, Beyond Perestroika (London, New York : Verso. 1989) p.118

대국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아시아로의 중점 이동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등 신흥공업국들의 동참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주된 관심을 경제문제에 주력, 전적으로 경제대국에 머물러 있던 일본이 수년 전 부터 政治大國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발돋움하고 있다. 일본은 각국과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이 정치적 영향력은 중동 -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나 브라질, 페루등 그 밖의 지역에서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이 영향력 신장은 아시아에 있어서 소련의 입장에 대한 중대한 타격으로 소련은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중국이 현대화 하여 상해·북경·광동 등지에서 일본·독일·미국등의 공업국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소련에게는 제1차 세계대전과 핵무기 개발에 이어서 20세기에 있어 세번째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25]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소련의 외교정책에서도 위기로 나타났다. 소련은 과거 6. 7 년간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상실해 왔다. 이제 소련은 1970년대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할 수 없는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은 동구에서 점차적 전통을 확보하고 지배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구제국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이들 제국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서구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고 무역을 행하면서 차관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게 되었다.[26]

세계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항구적인 현상유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현대세계는 전쟁과 힘의 정책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적고 무너지기도

---

25)송택구,조범순, 전게서, pp. 107~109
26)상게서, pp.113~114

쉽다. 이는 군비확대에 의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7]

소련은 소련경제의 구조적 정체현상이 명화히 인식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군사적대결 노선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전반에 걸친 장기적 경기침체는 소련경제의 저 성장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내포적 성장단계, 즉 잉여자본과 노동력이 고갈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생산성 재고에 의존하여 성장해야 하는 구조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소련의 경제적 규모는 미국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잉여자본과 노동력의 양적투입에 의존하여 외연적 성장을 했던 과거에는 소련은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을 하기 위해 국민총생산에 대한 군사비 지출의 비율을 2배로 하면서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중앙통제적 경제체제의 경직성과 비능률성으로 인한 경제적 정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노출됨으로서 소련이 더이상 미국과 군사적 및 경제적 경쟁을 병행해 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70년대 후반 소련은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아피샤, 에디오피아, 남예멘 등을 적극적인 친소국가로 만들었고, 1979년 12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친소정권을 수립하였다.[28]

이의 반동으로 탄생한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정권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서방측의 결속을 도모했다. 레이건의 군사강경노선에 따른 전략방위계획(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추진 및 반소 군사연합전선의 강화는 소련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켰다. 이는 소련으로 하여금 내포적 성장단계에서 소련경제의 저성장화라는 현실과 군사적 대결노선 충돌의 첨예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결국 군사적 균형확보를 위한 군비증강이 경제적 낙후를 초래한다면 군비경쟁도 계속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경제력의 뒷받침 없는

---

27)상게서, pp.111~112
24)최종기, 「현대소련 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88) p.294

군비확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29]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련은 군비지출을 줄이는 외교정책을 지향하였으며 신데탕트 시대를 예고하며 미.소의 평화적 국제환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第 3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內容

1. Perestroika

고르바쵸프는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기전 부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 들었음이 분명하고, 경제가 워낙 황폐해서 군비경쟁의 사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일찍부터 감지한 듯하다.

고르바쵸프가 서기장이 되면서 표방했던 첫번째 구호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가속화(Uskorenie)」였다. 대체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외연적 경제발전전략으로부터 생산력을 토대로한 내포적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이를 꾀하는 것이었다[30]

그가 내세웠던 초기 프로그램의 다른 쟁점은 「음주벽」에 대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위의 두 구호는 얼마 안가 뒷전으로 물러갔고, 가속화의 요구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흡수되었다.

1986년, 2월, 3월에 결쳐 열렸던 제 27차 소련 공산당 대회 아래 재구조화, 내지 재편, 변혁, 개혁을 뜻하는 페레스트로이카가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치의 중심개념으로 등장한다.

---

29)「소련.동유럽 총람」, 전게서, p.371

30)Hans - Hermann Hohmann , Soviet Reform Policy Under Gorbachev: Concepts Problems, Perspectives, Bericht des Bundesinstituts Fur Ostwissenschaftlich Und internationale Studien 22~ 1987. Koln, p.9

고르바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소련에 있어서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원 및 본질"을 생각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 줄 것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야심이 불타는 지도적 입장에 불타는 지도적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그룹들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생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흥적인 것이라면 수많은 사람에 대한 역설이나 당중앙위원회의 "힘"만으로 이렇게 하여 발분시키고 날로 더해가는 소련국민의 열의를 끌어 들이지 못할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과정 속에서 생겨난 긴급과제이다. 변화의 때는 무르익었고, 오래 전 부터 소련은 변화를 필요로 했다" 31)고 하였다.

이 개념이 처음에는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된 듯 하나, 곧 경제영역에서 쓰여져, 고르바쵸프는 노동양식, 경제구조 및 경제체제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 없이는 가속화된 경제성장목표가 성취할 수 없음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이어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주화」의 전제를 강조하기에 이른다.32)

1985년 4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원리가 발표되고 동년 6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에서의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이 되었던 밀도가 높은 활기있는 경제, 인센티브의 도입,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질이 다른 경제성장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였다.

새로운 투자정책이 취해지고, 기업의 구조적인 개혁이 행해졌다. 신규공장의 건설보다는 기존기업의 기계설비를 개량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제품의 품질

---

31)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Harper & Raw Publishers, New York, 1987.chap 1. 참조

32)Hans - Hermann Homann, op, cit, p.10

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원자재나 원료, 전력의 공급 등에 관한 합리적 이용방법등이었다.

1987년 6월의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경제운영이 근본적 재구성에 관한 기본규정이 채택되어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21년 레닌이 발표한 신경제정책이래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소련에 있어서의 경제개혁일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사실상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 관계되며 물론 페레이스트로이카의 내용이 방법, 형식에 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전시키고 보다 명확하게 하면서 수정할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전체적 개념, 계획은 본질적인 사고는 물론 각부분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규정되어있다. 즉 페레스트로이카는 정체된 상태를 배제하고, 애로(bottleneck)현상을 타파하고, 신뢰 속에서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만들어 내고, 사회 ,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큰 활력을 부여코자 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대중이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하도록 한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적 자주관리(Self-management)체제의 포괄적 발전이며, 자발성이나 창조적인 노력을 장려하고 질서와 규율을 개선하고, 공개성을 촉진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비판이나 자기 비판을 활발하게 행하도록 한다. 개인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모든 면에서 소비에트 경제의 활성강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민주적 중앙통제의 원리부활과 발전을 꾀한다. 각종이 경제방식을 넓게 받아들여 위로 부터 강요하는 경영을 거부하고 기술혁신과 사회주의적 기획활동을 전면적으로 장려한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에서는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확실한 방법전환을 하고 새로

시작되는 모든 사업에 확고한 과학적 기반을 준비할 수가 있다. 과학적 기술 혁신의 성과와 계획경제의 기회인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에서는 사회적 영역의 발전을 우선시키고 보다나은 생활이나 노동조건, 휴가나 레크레이션, 교육, 의료를 원하는 소비에트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적, 정신적 풍요에 부단히 관심을 가지고 각 개인을 사회전체의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왜곡된 사회주의의 윤리를 배제하고 사회정의가 확실히 행해질 것을 지향하고 있다. 언행의 일치와 권리의무의 조화를 도모하고, 성실하고 질높은 노동을 장려하고, 임금과 소비의 평등화의 경향을 극복한다.

페레스트로이키는 계몽운동같은 것도 아니고, 통제적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객관적 필요성에 입각해 있으며, 또한 그 것의 진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시켜 실천의 양면에서 레닌의 생각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재생시키는 것에 있다.

2. Glasnosti (開放. 公開性)

글라스노스찌란 '목소리(Golos)가 있는 상태' 를 뜻하며, 공개, 개방 등으로 번역된다.[33] 소련에서 이 용어가 특정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된 것은 19세기 초반에 위로 부터의 부르조아 개혁이 추진되면서이다. 그 이후 1917년 10월 혁명 전까지 글라스노스찌는 서구 시민사회에서의 부르조아적 개방성과 유사한 의미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1917년 10월 혁명은 글라스노스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

33)장행훈, "글라스노스찌와 소련 언론", 한국 언론 연구원 편,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서울: 한국언론 연구원,1989) p.143

10월 혁명에서 '言論은 부르조아 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테제에 입각한 새로운 글라스노스찌, 즉 플로레타리아적, 공산주의 글라스노스찌를 요구했던 것이다.[34]

이러한 그라스노스찌는 레닌에 의해 처음으로 정치적 어휘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그라스노스찌란 완전하고 믿을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며 권위있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진실을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대중이 모든 것을 알게끔 개방하는 것이며, 대중의 의견이 모든 쟁점에 반영되어 의식적으로 모든 정책에 집결되는 것이다".[35] 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 용어는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사결정과정상의 단점과 권력기관내의 정치적 논쟁에 관해 보다 잘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36] 그러나 오늘날은 "개방성, 특히 정부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토론장(Public Forums)을 이용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위에서 좀 더 인내하는 것을"[37]의미 한다

고르바쵸프는 개혁이 위로 부터가 아니라, 국민전체를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현실로 직면한 경제위기를 명확하게 알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개념이 개방, 즉 글라스노스찌이다. 1985년 3월12일 고르바쵸프는 당서기장 취임연설에서 글라스노스찌의 필요

---

34)한국사회 언론 연구회, "글라스노스찌와 소련언론의 변화", 학술 단체 협의회 엮음,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서울 : 한울, 1990. pp.337~338)

35)V.Lenin, Ibid, Vol.35. p.21

36)Zhores Medvedev, Gorbachev, 박찬길 역, 「고르바쵸프」, (서울: 방한출판사 .1988) p.293

37)조순구,"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6집(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p.126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38]

"우리는 당. 국가. 정부. 사회 등 제반 조직들의 활동이 더욱 더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대중의 자각을 통해 더 강력해 진다'고 레닌이 말했다. 이 견해의 정확도는 우리들의 실천에 의해 정확하게 증명되었다. 사람들은 정보를 얻게 되면 얻은 만큼 자각해서 행동하며 가일층 적극적으로 당 및 당의 계획과 목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위와 같은 글라스노스찌는 개방이 중요성에서 출발한 개념이므로, 소련 국민 대중의 사회건설을 위한 참여도, 협동의식, 책임감을 재고시키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글라스노스찌는 대중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라스노스찌는 단순한 정보의 토의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는 관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중의 수동적 태도와 무관심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39]

개방을 확장시키려는 정책을 고르바쵸프가 그의 강령이나 정치보고 중에 제시된 사업의 민주적 원칙에는 자유로운 업무상의 집단적 토론과 의문점의 해결, 개방성, 자아비판과 비판, 투표권자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者 등을 조기에 소환하는 정도까지의 대표자들의 책임과 규칙적인 보고, 집행기관과 기타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포함되어

---

38)M.S.Gorbachev, "당서기장 취임연설", 알렉산더 달린 外, 「고르바쵸프 시대」, 변진홍 옮김. (서울 : 문우사. 1989. p.199)

39)하용출. "소련의 개혁과 볼세비키의 사회주의적 반성", 「소련의 개혁, 개방과 한반도」(서울:국토통일원, 1988.5) pp.30-31

있다.[40]

또한 1986년 2월 25일 제27차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보고 연설에서 고르바쵸프는 다음과 같이 글라스노스찌를 강조하고 있다.[41]

"개방과 확대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는 원칙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개방없이는 민주주의. 대중의 정치적 창작, 그리고 대중의 관리부문 참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수천만 노동자와 콜호스 농민, 인텔리겐차의 책임성을 고양시키는 국가적 과업이며, 우리 인재들의 정신자세를 개조시키는 출발점이다, 일을 되는대로 하며, 눈가림식으로 하는데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 국가와 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인민의 통제 아래, 즉 인민의 면전에 있는 개방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편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개방을 부단히 작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르바쵸프는 제27차 당대회 이후 약 5개월 후인 1986년 7월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연설에서 "그라스노스찌는 당과 사회의 정상적 기능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글라스노스찌가 정치적 민주화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개방과 대중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과거 중앙통제적 질서하에서 억압받았던 민중의 자주성과 다양한 의견의 수렴, 그리고 이를 통한 자발성의 확립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라스노스트에 입각한 정치적 민주화는 공산당과 사회와의 관계의 재정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전에 당의 지도자 내지는 선도자로서 국민을 끌어나

---

40)지충남.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8 p.27)

41)M.S.Gorbachev. "소련 공산당 제27차 대회에 제출하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 보고", 프로그래스 출판사 편,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전략 - 소련 공산당 제27차 당대회 토론 자료집」, 김정민 옮김.(서울: 이성과 현실, 1990) p. 101

가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밑으로 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의 전지전능의 시대가 지났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당의 지도자적 역할이 완전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련 사회에서 더 이상 지배를 받아야 할 인민들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소련인의 교육 수준의 향상, 매스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수집의 용이성 등은 과거와 같은 통제위주의 관계가 어렵게 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42]

글라스노스찌는 고르바쵸프 개혁과 관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한 시민들이 정치과정 참여와 진실왜곡, 부정부패에 대한 최격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글라스노스찌가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신적. 도덕적 분위기의 생생한 증거로서 대중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현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의 노력목표가 무엇이고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하고 이같은 이해의 바탕에서 의식적으로 개혁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43] 그러므로 글라스노스찌는 소련대통령이 가고 있는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이면에 방지해 주는 소중한 안전한 구실을 하고 있다.[44]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글라스노스찌는 페레스트로이카이 진전과 함께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소련에서 글라스노스찌의 부활과 확장은 페레스트로이카로 하여금 추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로를 사회주의 재건과 강화로 이끄는 내밀한 誘引力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궁극적으로 글라

---

42)M.S. Gorbachev. Peresfroika, OP. cit, pp.61~65

43)M.S. Gorbachev, Perestroika, OP,cit, p.61

44)K.S.Karal" Gorbachev and the Dynamics of change",in Ralph Miliband, Leo Pa
Leo panitch,and John Saville(ed) Socialist Register 1988
(London: Merlin, 1988). p.26

스노스찌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심화, 소련 인민의 창조적 활동 강화, 공산당원의 실천적 사업에서의 역할이라는 제27차 소련공산당 대회가 정한 혁명적 변혁을 성취시키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Demokratia (민주화)

공개화, 민주화는 소련의 현재 재편노력에 당겨져 잇는 기본철학이다.
즉, 소련은 재편의 전제조건과 성격규정을, "비판을 전제한 공개와 노동자 인민의 참여를 유도키 위한 민주화"에서 찾고 있다.
고르바쵸프는 자신의 저작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의 창조"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온 대중기구와 온 생산집단과 생산연합체들의 전면적이고 원기왕성한 기능수행을 필요로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사회 전 분야의 폭넓은 민주화를 필요로 한다".45)

만약 민주주의적 과정이 소련에서 정상적으로 발전되었더라면 오늘날이 어려움은 없었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고르바쵸프는 이어 "우리는 우리의 과업을 인간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역량을 발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보기 대문에 민주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46)고 한다. 요컨데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민주화는 경제기구와 경영의 개혁, 다시 말해서 그 개혁이 주요소가 노동단체들의 역할증진에 있는 개혁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지적부문과 대중의식, 그리고 활력있는 사회정책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주

---

45)M.S. Gorbachev, 「Perestroika」, OP. cit, PP.31~32
46)Ibid p.32

의적 민주주의의 승리, 즉 인간적 요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47] 이것이 또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수이기도 하다.

1987년 1월27일 CPSU 중앙위원회 1월 총회에서 행한 「재편과 당 간부정책에 관하여」라는 題下의 보고,[48]에서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민주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 본질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이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광범위한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개혁에의 관심. 그리고 개혁의 수행에 실천적인 참여를 실현시키는 형태이다.

그러한 권리는 생산·과학과 기술·문학·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적 형태에 부단한 발전과 자치권의 확대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따라서. 재편 그 자체로 민주화를 통해서만 그리고 민주주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에트 사회의 금후 민주화가 당의 초미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직장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발전, 노동집단들의 활동에 진실한 자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도입함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실상 국가기업법은 경제의 기본영역에서 경영의 조건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기업활동에서 계획원칙과 완전한 독립채산제의 통합, 자주성과 책임성의 통합을 강화하여 대중의 창의성에 의해 촉진제가 될 것이고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

47)Ibid, pp.34~36

48)이 글은 1987년 1월 27~28일 양일간 개최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행한 고르바쵸프서기장의 "재편과 당 간부정책에 관하여"를 李恒在,金京順이 번역하여 실은 「중.소연구」의 자료 모음.pp.265~309를 참조하였다. 이 정치 보고의 전문은 「프라우다」와 「이즈메스챠」지 1987년 1월 28일자에 각각 게재되었다.

민주화를 위해 또한 고르바쵸프는 민주주의를 단순한 구호로 오해하는 동지들의 구태의연한 견해와 습관을 버려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민주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선거제도의 개선도 지적했다.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들 처럼 선거제도도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재편과 사회발전과정과 무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어 민주화의 공통범주내에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감독 비공산당원에 대한 차별없는 인재등용을 강조한 그 참된 민주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수호하면서 개인에게 봉사한다. 동시에 참된 민주주의는 [49]개별집단과 사회전체에 봉사하며 그 이익을 수호한다. 참된 민주주의 효력은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에 입각하여 의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사회의 모든 계통과 단체로 부터 얼마 만큼의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는 재편의 이념으로서 시장경제도입의 개념이 아닌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도구성을 띠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개와 민주화가 재편의 본질로 채택됨에 따라 비판과 자기비판이 정부적 지원하에 새로운 미덕으로 치켜 올려지고 있는 한편, 인민참여와 자율성의 고취가 경제개혁의 주요과제로 대주되고 있다.

4. 새로운 思考 (New thinking)

새로운 사고는 고르바쵸프 등장 이래 개혁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 개념이 되고 있다. 그의 주요 보고서 내용 가운데 정치. 경제. 대외정책. 이념 등의 제

---

49)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xxxlx,No.8 1987.3. pp.6~7

분야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개념으로 변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1986년 2월 25일에 개최된 제27차 당대회에 기본연설 중에서 "새로운 政治思考"가 그의 기본적 외교이념이라고 역설한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새로운 정치사고"는 고르바쵸프 시대에 비로소 돌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브레즈네프시대 후반부터 아나토리 그로미코(앙드레 그로미코 간부회의장의 아들) 소련과학 아카데미 소속의 아프리카 연구소장과 우라지미르 호메이그, 제르멘 구비쉬아닌(코시킨 前 수상의 사위)등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맹아적으로 진술되었던 사고방식을 대폭 채용한 것이었다.

고르바쵸프 서기장 자신이 오늘날 "새로운 정치사고"와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정치사고"와를 새삼스럽게 대비시키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예컨대, 1987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Bladivostok)연설 속에서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모든일은 대외정책에 관한 많이 정해져 있는 접근방법의 발본적인 타파, 전통적인 정치사고를 타파할 필요성을 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세계는 사회체제의 상위함을 넘어서서 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온 인류의 핵전쟁으로 부터의 위기로 인한 존망이 걸려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小異를 버리고 大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50]

위의 일들을 미국과의 사이에서 합의하고자 하는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새로운 정치사고"는 서방 측에서는 반문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낡은 생각"을 타파한 획기적인 외교 철학으로서,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계급대립, 따라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상용할 수 없는 체계적 대립의 시각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르

---

50)"Gorbachev : 'New Thinking' in world Affains",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ume XXXIX,NO,45, 1987.12.9. pp.12~17

카쵸프 서기장의 "새로운 사고"는 그와 같은 계급적 사관을 떠난 새로운 철학의 출현을 밝히고 잇는 것이냐, 그것은 사회주의,자본주의의 차이를 넘어선 고차원의 인류협력을 경고하면서 제의했다. 또 소련의 지금의 대외적 행동양식은 군사력편중의 "힘"의 외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사고는 그와 같은 군사력만의 불모성, 역효과성에 대한 한계를 알게 되어 비군사력의 중요성을 주목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한가지 해석은 "새로운 사고"를 제창하게 된 배경으로서 소련의 절박한 내적인 사정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견해이다. 오늘의 소련은 이미 군사력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군베경쟁을 계속할 만한 여건을 결하고 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 제창의 SDI(전략방위구상)에 대항할 힘은 오늘의 소련의 뒤떨어진 경제·과학기술 수준으로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판단과 미군사력의 신장을 억제해 보자는 목표에서 "새로운 사고"를 내세운 새로운 평화자세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같은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새로운 사고"에 관한 호의적인 견해와 비호의적인 시각이 있는점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함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과거의 후루시쵸프가 "평화공존"을 ,브레즈네프"긴장완화"를 각기 외교적 명분으로 내세웠듯이 고르바쵸프"새로운 사고"라는 표현으로 합리화 시키고자 한다는 견해도 가질 수 있겠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고"의 내용으로서의 1987년 1월 중앙위원회 총회보고서 가운데 나타나는 개념을 들 수 있다. 주로 이론적,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서 레닌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주의적 교리해석에 융통성을 두어 새로운 개혁노선에 따르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관한 레닌의 명제 역시 단순하게 해석되었다.[51]고 하면서 "공

---

51)"재편 및 당간부 정책에 관하여",고르바쵸프 서기장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1월 총회보고, 1987년 1월27일,「중.소 연구」 자료모음, pp. 265~309

산주의에 대한 피상적 관념, 여러 종류의 예언, 추상적 견해가 분명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의 역사적 중요성을 경감시켰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52], 따라서 현재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이 '30년대 40년대' 수준[53]에 머물러 있으므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그 추진력과 모순의 변증법, 사회의 실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탐구'는 '적극적인 논쟁', '창조적 사고'[54] 즉 새로운 사고를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경제면에 있어서는 관료주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이 구조적 해악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동강령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고의 시도는 경제면에서 기업의 책임증대, 중앙계획당국의 능력감소,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적절한 조화등에 중점을 둠으로서 계획과 시장의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이념들을 구체적이고도 상호연관지어 살펴 보았다.

---

52)Ibid.
53)Ibid,
54)Ibid

第 3 章 고르바쵸프의 改革政治

第 1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治의 基調

고르바쵸프의 등장과 페레스트로이카의 열풍은 소련의 체제위기의 연원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1987년 부터 시작되는 소련 政治制度의 개혁은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둘러싸고 당지도층 간의 이견이 계속되었고 특히 관료적 기득권층의 저항과 옐친 등 급진개혁세력이 불안이 함께 분출되면서 고르비쵸프의 정치개혁은 얼마간의 파행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치의 기본적인 바탕과 흐름을 정리한 후 政治制度의 개혁내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Perestroika

改革을 내건 페레스트로이카의 성장 가속화 전략은 농업.소비재 등의 경제개혁 전반에 걸쳐 한계에 부딪쳤다. 제27차 당대회는 1986년 2월 개최하였으나 여기서 채택된 당강령과 정치보조와의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정치보고에서는 '근본적 개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또 가족청부, 개인청부라는 농업개혁의 이념이 제시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內容중 첫째는, 경제개혁이다. 둘째로, 그라스노스트(공개성)가 페레스트로이카의 도약점이 되었다. 당강령에서 매스컴의 重要性이 강조되고 체르노빌의 핵사고를 계기로 蘇聯社會의 부정면을 솔직히 지적하는

비판이 장려되었다. 셋째로, 1987년 1월. 당중앙위원회 총회 이후, 정치개혁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87년 6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국영기업법이 채택되어, 기업의 대폭적인 자주성 부여를 중심으로한 개혁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87년 1월 정치개혁은 당지도부내의 충분한 합의 없이 고르바쵸프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에 부딪쳤다. 88년 의 제17차 당협의회의 설정에서 개최에 이르기까지, 보수파, 소극적 개혁파에서 보수적 반응이 나타났다.

넷째로, 새로운 사고가 슬로건으로 등장, 그 일부가 실시되엇다. 1986년 5월의 외무성회위가 대미관계개선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것이었다. 이 결과 대서구외교, 대중국, 일본외교, 신흥공업국(NICS)에의 접근은 과제로 남았고, 동구에 대해서도 개혁의 신호는 나타났으나 토착화된 동구의 보수적 정권은, 이것을 무시하던가,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시민들은 환영하였으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였다.

2. 새로운 思考

고르바쵸프 외교의 원리가 되고 있는 새로운 사고(New thinking)는 내용을 두고 있다.[55]

(1). 국제관리에 있어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2)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예: 환경오염, 천연자원의 고갈, 우주개발, 자역분쟁)의 해결은 지구적인 규모와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 하

---

55)Mikhail Gorbachev, Perstroika :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87. pp.17~59) ;Eugene Primakov, Vladlem Martynov, Herman Diligensky, "New Thinking".
IMEMO discussion Papers (Moscow, 1990.pp.1~23 .
최종기, 「현대소련정치론」,(서울:법문사.1990). p.199 재인용.

다는 것 (3).국제적인 안전보장은 다만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정치·기타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 없이는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르바쵸프는 페레스트로이카는 무엇보다 경제적 동기, 즉 소련의 경제실제가 세계적 수준에 비해 퍽이나 뒤떨어져 있다는 데 자각을 통해서 취해진 것이다.

이 경제적 페레스트로이카는 기본개념은 효율차에 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다. 고르바쵸프는 대내적 경제개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일반에 있어서도 경제적 배용, 효율성 또는 비용과 편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련의 대외정책을 효율화하고 실리를 중시하고자 한다. 고르바쵸프는 국가관계가 탈 이데올로기화 하고, 이익의 균형위에 서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56]

3. 體制改革의 方向

고르바쵸프를 비롯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주도하는 소련공산당의 지도층은 매우 일찍부터 오늘날, 소련이 처하고 있는 위기상황은 결국 소련정치체제의 위기라는데 참여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열풍이 불어오면서, 또 특히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사회여론은 체제위기와 체제하강의 주범으로 관료제를 지목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날이 갈수록 신랄해졌다. 대체로 이들의 논조는 적어도 1800만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관료제가 그 억압적 성격과 비능률 대문에 사회내의 모든 창의성을 질식시켰다는 관료체제와 당의 권력독점은 유기적, 인과적 연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1987년 이래 소련의 당내외 언론은 당이 관료적으로 퇴화했

---

56)Dadid Land, Soviet Society Perestroika (Boston:Unwin Hyman, 1990). pp.13~19, 최종기, 상게서 pp.201. 재인용

으며 소련의 관료제는 「봉사적」 관료제가 아니라, 「지배적」관료제라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체제의 「병영사회주의」로의 퇴영화. 엄청난 부채, 권력남용, 이데올르기적 교조주의 등의 현상등은 하나같이 「명령형 관료계층」의 이익상황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관료제는 레닌이래 다분히 「정치적」이며, 그 때문에 쓰여지는 「정치관료」(Politik burokratie)라는 개념은, 소련의 전체체제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은 물론 이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배계층을 분명히 표현하는 개념이다.[57]

정치관료제는 이 체제를 이끌어가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치정향에 있어서도 「目標合理的」(Zweckrational)이 아니라 다분히 「價値合理的」 (Wertrational)이다.

따라서 정치관료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목표」나 「이익」, 그리고 「능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배계층의 지배와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념적 「가치」에 봉사한다.

여기서 배태되는 가장 큰 문제는 비대한 관료제의 무능과 부패이다.

소련의 정치관료제는 수직적 수준에서 중앙의 이른바 「마피아 본부」와 「지방제후」간의 연계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쌍방은 「同鄕'간의 연고를 바탕으로 결속을 다지고 상호경력 상승을 위해 지원.협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심화되면 자연 연방구성공화국이나 지역 등이 모스크바에 있는 개별 과두제의 비호 아래 그 관계의 폭만을 중시하고 전반적으로는 중앙통제의 권역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다. 여기서 당기구의 수직적 분절현상이 빚어진

---

57) Gyula Jozsa, "Das Herzstuck im Reform Paket gorbatschows: Die Ungestaltung des Parteiapparats," Sowjetunion 1988/89, (Koln : Bundesinstitut fur Ostwissenscha - ftliche Und internationle studien), S.37,
김달중 외, 「소련의 개혁정치」, (서울: 법문사, 1991.8) pp.57~58 재인용

다. 그런가 하면 수평적 수준에서도 국가 및 경제행정의 개개 관할분야마다 분절. 표류하는 현상이 계속 일반화되었다. 즉 당은 당의 지도를 앞세우는 체계의 속성상, 국가 및 국제행정의 구체적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하게 되는데, 그 결과 당기구의 부문 책임자는 국가 및 경제행정의 연관부문과 밀착되어 결국 그 평행관료제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부문별 이기주의가 발호하게 되고 수평적 분절현상이 심화된다. 대체로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페레스트로이카를 표방하는 당지도층은 처음부터 체제위기의 원인을 당의 권력독점이라고 보고 이를 혁파하려고 노력했다기 보다, 오히려 일련의 합리화 조치를 통해 다의 권력독점의 바탕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던듯 하다. 적어도 초기에는 이들은 일당지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듯 하고, 따라서 당의 「지도적 역할」도 포기할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정치개혁을 통하여 당의 신뢰성을 재창출하고 지배를 위한 기초를 재건, 확장함으로써 당이 사회내에서 새롭게 수용되도록 만들어 보려고했던 듯하다.[58]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 등 당기구 내의 보수세력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저항이 치열해지고, 또 많은 인민들이 당에 대해 식상해 있음을 간파한 고르바쵸프는 당의 개혁은 물론 당.정을 분리하겠다는 압장으로 바뀌게 된다.

4. 人事改革一脫 브레즈네프 人事

고르바쵸프는 비교적 일찍부터 새 정치는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당지도부를 자파 사람으로 바꾸는 데 매우 세심한 신경을 썼다. 1989년 초의 시점에서 정치국위원 12명 중 고르바쵸프 자

---

58)김달중외, 상게서, p.60

신을 제외하면 단 2명만이 그가 1985년 3월 당서기장이 되기 전에 정치국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런가하면, 당중앙위의 10명의 서기들 중에 고르바쵸프 외에는 리카쵸프만이 1985년 3월 이전에 거기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고르바쵸프는 이처럼 짧은 시간안에 당의 최정상지도부를 개편함으로서 우선 쿠데타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또한 이후 새로이 임명되는 당직에 자신에게 충성을 바칠 자들을 세심하게 발탁 함으로써 그 권력기반을 착실하게 다졌다. 그런가 하면 1988년 11월 현재 각료회의 구성원 96명 중, 고르바쵸프 등장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단지 16명의 불과했다.

고르바쵸프가 당의 정상수준 내에서의 그의 권력지위를 확보하는데 약 3년이 걸렸는데 반해, 그러나 그가 확실히 수중에 넣지 않으면 안될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다수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계속 실패했다. 제17차 전연방 특별당대회(1988년6/7월)에서 그 뜻을 이루고자 했으나 끝내 실패했다.[59]

第 2 節　고르바쵸프의 政治 改革

1. 소비에트 代表制度의 改革

1) 소비에트 代表制度

현행의 소련헌법은 "소비에트(soviet)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모든민족과 민족체의 근로자의 의지와 이해를 대표하는 전인민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소비에트가 소연방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

---

59)Gerhard Siman, "Perestrojka-eime Zwischenbilanz", Sowjetunion 1988 / 1989, Perstroika in der Krise? (Koln : Bundesinstitut fur Ostwissenschaftliche and internatione studien , 1989), ss, 22~23

라고 되어있다.

소비에트는 국민대표기관으로 구성원의 선출을 18세 이상 국민에 의해 보통. 비밀. 직접. 평등투표를 통해 행하여진다. 1989년 까지는 복수후보가 아닌 단일후보 밖에 없었다. 선거에는 당의 직접 참가가 인정되어 후보의 추천과 선거관리는 당이 행하며, 그 때문에 선거의 투표율이 99.9%이었다.

최고 소비에트대의원은 많은 정치국원과 지방당 서기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제도 전체가 문제화 되어 페레스트로이카의 문맥에서 소비에트 개혁이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그결과, 소비에트를 의회에 가까운 것으로 하는 발생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1988년 이후 최고소비에트를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로 표현하는 것도 이것이 소비에트적인 원칙에서 권력분리형의 입법기관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서이다.

2) 人民大議員大會. 最高會議

인민대의원대회는 종전의 최고회의(소비에트)에 대신하여 1988년의 제19차 당의협의회, 연말의 헌법개정에 의해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1989년 3월의 대의원 선거를 거쳐, 5월에 소집되었다. 임기 5년(한차례 중임 가능)의 대의원 2,250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750명은 지역선거구에서 750명은 민족지역 선거구에서, 나머지 750명은 전 연방적으로 조직된 사회단체(공산당. 노동조합. 협동조합. 작가동맹. 과학아카데미 등)에서 각각 선출된다.

이것은 헌법의 개정, 국경확정, 내외정책의 확정 등, 소련의 국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또 연 1회, 최고회의에 비해 소집되어 어떠한 문제로 심의.결정이 가능하다. 또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도 있으며, 1990년 3월의 임

시인민대의원대회에서는 대통령 제도가 도입되어, 고르바쵸프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60]

3) 複數候補制 및 秘密投票制 도입.

1987년 1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르바쵸프는 당을 보다 능률적이며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조직적 조치를 제안했다. 여기서 그는 연방구성공화국 및 州수준까지의 지방 당간부의 비밀투표 및 복수후보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고르바쵸프는 선거를 통하여 보수주의적이고 무능력한 지방관료들을 세련된 방법으로 제거해 버릴 속셈이었던 듯하다. 당 중앙위원회는 울며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地區 수준에서는 실시되기도 했지만, 당 중앙위원회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상급의 연방구성공화국 및 各州의 제1서기 수준에서는 좀처럼 실시되지 않아 당관료제의 저항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보여 주었다. 연방구성공화국의 경우, 복수후보제 및 비밀투표 형식의 첫 선거가 1989년 9월 28일 우크라이나 공산당 제1서기 선출 때였다.[61]

1988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개최된 제19차 전연방특별당대회에서는 당내 선거의 민주화와 더불어 선출된 당간부의 임기제의 관해 새로운 개혁안을 결의했다. 이것 역시 당관료 기구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조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당위원회(당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서기와 구성원들은 1989/89년부터 동일 직위에 최장 10년(1기 5년 한번 중임)까지 머물 수 있

---

60)최종기, 「현대 소련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1.4) pp.202~203)
61)1989년 10월14일,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당건설 및 인사정책문제위원회는 기존의 지방당조직 지도자의 선출형식이었던 "노멘클라투라 制"(일연명부제도)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

따라서 고르바쵸프 서기장을 포함해서 모든 수준의 당의 직위를 가진자는 10년이상 같은 직책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브레즈네프 재임시 당고위간부들이 한자리에 20년 가까이 머무는 예가 일상화될 정도로 인사정체가 심각했고, 또 이것이 관료주의 및 관료부패의 온상이 되었음을 상기할 때, 당직 임기제는 매우 시의 적절한 당 인사정책의 개혁이었다.[62]

2. 大統領制의 導入과 政府의 改革

1) 大統領制의 導入의 背景

고르바쵸프에 의한 소비에트에의한 소비에트의 활성화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인민참여에 기반을 둔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였으나 그 것으로써 고르바쵸프가 법의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권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계속적인 경제 부진과 민족문제등 대내적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소비에트는 하루가 급한 법안처리 마저 지체시키는 무기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저항과 의회의 무기력을 극복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르바쵸프는 정치권력을 본질적으로 당에서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한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제의 신설이다.

1990년 3월에 개최된 소련 인민대의원대회는 막강한 권력의 대통령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압도적으로 개헌 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집권 6년제를 맞는 고르바쵸프가 거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

62)Heinz Brahm, Stagnation, Perestroika, Krise, Bundesinstitut fu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le studien 68~1989, Koln, ss, 9~10

대통령제의 필요성은 공식적으로는 2월 초순에 개최된 공산당 중앙위원에 확대총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여기서 소련은 나라가 처한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형 대통령」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아르메니아 공화국 제1서기인 「아루츄난」은 대통령제 도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63]

「대통령제의 창설은 법치국가 건설로의 결정적 단계이다. 대통령제의 본질은 권력의 공백을 즉흥적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쇄신된 연방의 중요한 통일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무권력에 의한 위기는 위험하다.」

그러나 대통령제에 창설은 한 개인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독재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비록 초대에 한한다 해도 인민의 직선이 아닌 인민대의원대회의 간선에 의해 선출된다는 문제점 등으로 일부 의원들과 보수파 그리고, 특히 급진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최근 보수파 측에서도 만성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한 권력의 등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개혁파의 입장에서도 페레스트로이카를 보다 성공적으로 그로인한 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를 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이 권력집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2) 大統領의 權限과 性格

새헌법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능면에서 신설된 대통령평의회 및 연방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안전보장 민족관계등 행정전반을 통찰하고 총리와 최고 재판소 장관등의 인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 거부권, 군의 통수권, 총동원령과 선전포고 및 계엄령 선포 등, 비상대권을 가진다.

---

63)안택원, "소련, 대통령제 도입과 정치,경제적 모델 ", 「소련연구 2 」, 1990.4. 18면

한마디로 이는 종래의 소련공산당서기장, 최고회의장, 각료회의의장, (내각-총리)의 권한을 합쳐 좋은 것으로써, 새 대통령은 소련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의 권한을 국가행정, 입법 및 군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새 헌법안에 따르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원수인 대통령 직속하에 내정.외교의 기본 방침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책결정기관으로 대통령평의회를 신설하고 민족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연방의회를 두고 있다.

대통령평의회는 대통령이 그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현재의 당서기장 보좌관,최고회의 의장고문, 당 중앙위원회의 우수한 참모들을 대거 포용해, 앞으로 공산당 정치국이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 소련의 최고권력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모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연방평의회는 대통령 주재 하에 연방구성공화국(15개)의 최고회의 의장들을 구성되어 민족문제를 논의하며 민족분쟁을 조정 .해결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소련의 대통령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의 최고 권력자이다. 행정적으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연방각료회의(내각)을 설치하여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입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최고회의에 대해 연방각료회의 의장(총리)과 연방최고재판소 장관, 검찰총장 등 후보자의 제청 및 해임을 요구하고 연방각료회의 총사퇴를 최고회의에 제안하고 동시에 법안의 거부 및 재심요구를 할 수 있고, 총동원령과 선전포고, 비상사태 및 계엄령을 선포한다.

위의 권한 중에서 가장 논쟁의 촛점이 되었던 것은 대통령의 비상사태선

포권과 법률안 거부권이었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의 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64]

아울러 입법부의 관계면에서, 최고회의의 양원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하여 「국가권력과 통치의 최고기관」이 정상적인 활동에 방해받을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연방최고회의를 개선하도록 인민대의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소련의 의회는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회의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안정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의회가 현재처럼 파행적 운영을 계속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유효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은 군통수권장악에 따라 지금까지 최고회의 의장이 주재하는 「국방회의」에서 결정해 온 군관계 주요정책을 이제 대통령의 掌內에 들어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 최고 사령기관」으로 군회고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어 종전에「당의 군」이었던 소련군이 완전히 대통령의 직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소련 대통령은 행정, 입법, 사법 및 군을 두루 통정하는, 말하자면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의 권한을 합친 정도의 제왕적 권한을 향유하는 막강한 존재로서 소련정치의 수면 위로 크게 부상했다. 그러나 대통령제 도입의 진정한 의미는 그간 정치.행정을 두루 지배하던 공산당이 이제 그 제도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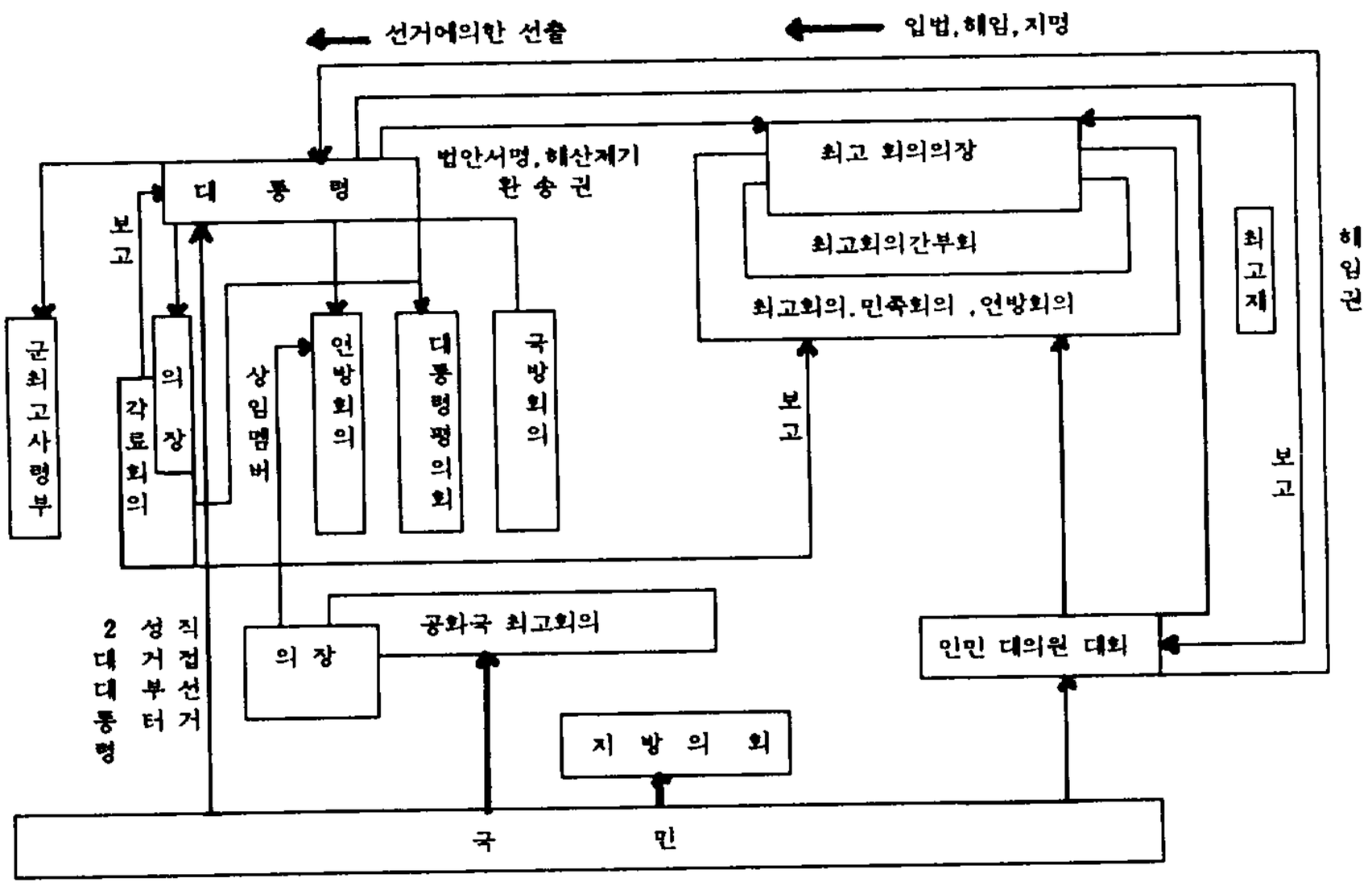
64)즉 비상사태 선포시 각 해당공화국 최고회의 간부회와 협의하도록 돼있던 원래 안을 비상사태 선포에 앞서 우선「경고」를 발하도록 하고 비상사태선포는 해당공화국의 요청 및 동의에 기초하도록 했으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연방최고회의에서 3분의2의 찬성을 얻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선포 요건을 강화시켰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안이라도 최고회의가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분적으로 나마 제한했다.

기반을 잃고 사실상 그 대권을 , 국민적 동의에 기반을 둔 국가기관, 특히 대통령에게 넘겼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제는 그것이 자칫 독재화를 치닫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반면 소련과 같은 다민족국가에서 대통령이 통합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최근과 같이 당과 정부의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대통령제 도입에 따른 소련의 새로운 정치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5]

<표 3 -1 > 소련의 신정치기구



65)김달중 외의 전게서, pp. 69~70

3) 大統領과 政府

소련의 정치구조는 1987년 1월 이후, 정치권력이 제기되어 소비에트 개혁이 본격화 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1988년에는 당으로 부터 국가로의 당협의회에서 이 방침을 채택하고 헌법개정에 의해 소비에트적 의회에 해당하는 인민대의원대회, 최고회의를 제도화하여 익년 3월 선거에서는 복수의 후보자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를 1989년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격동 이후 결정적 단계에 이르렀다. 1990년 2월의 일당독제체제의 복수정당제의 허용, 그리고 대통령제의 도입 등에 의해 1917년 10월 혁명 이래 대 전환을 맞이하였다.

페레스트로아카의 전개, 특히 1987년 이래의 정치개혁과 함께 당의 역할이 변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1988년의 제19차 소련공산당 협의회는 당과 국가를 분리하여, 소비에트적인 의회를 창설하고 당서기장은 선거를 거쳐, 최고회의의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고르바쵸프는 88년경 부터 대통령제 도입을 재개, 90년 2월 이것을 제도화하였다. 소련 대통령은 국가원수(헌법 제127조)이며.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인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되고, 중임될수 는 없게하고 있다. (초대는 인민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출) 대통령제가 급속하게 부각된 것은 동구 시민혁명의 영향, 특히 당기관의 권위의 급속한 실추와 경제적 곤란, 민족문제 등의 심각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무리한 경제정책 단행으로 민중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의회에 대한 거부권, 비상대권을 도입한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제가 필요하게 된 것은 페레스트로이카에 수반하여 많은 법률이 채택은 되었어도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과 관계된다. 즉 종래는 당관료제가 정부의 약한 권한을 보완하여 왔었다. 그러나 당기구가 행정

에서 손을 떼자 여기에 강한 당이 아닌, 국가의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은 복수정당제가 없이 강력한 의회를 결한 권력의 불충분한 분립의 상황 속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대통령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큰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고르바쵸프는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53%의 지지로 선출되었으나, 다음 번에는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회의의장, 각료회의의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1990년 12월 27일 인민대의원대회 마지막 날, 신설된 부통령제에 의해 고르바쵸프가 추천한 부통령이 2차투표에서 겨우 승인을 받은 바 있다.[66]

3. 新 政治綱領의 採擇 과 黨의 改革(人間的 . 民主的 社會主義의 志向)

1) 黨中央委 , 新政治綱領草案承認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확대 정례총회가 1990년 2월 5일 부터 7일 까지 3일간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정에서 열렸다. 이 총회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28차 공산당대회에 제출할 신정치강령의 초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폐막되었다.

신정치강령(안)에는 ①당의 기본이념 ②. 일당독재 포기와 당의 쇄신 ③. 복수정당제의 용인 ④.당의 민주화(민주집중제의 완화) ⑤. 대통령제의 창설 ⑥.경제개혁 ⑦. 민족 문제 ⑧.당의 기구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새강령(안)은 당이 지향하는 이상으로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다양한 재산소유형태의 존재에 입각한 계획시장경제의 창설을 지지하는 등, 기존의 소련정치, 경제체제의 기본틀을 크게 변화시키

---

66)최종기, 전게서, pp.203~205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 당연시 되었던 「계급적 관점」 이 고르바쵸프의 이른바 「전인류적 관점」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르바쵸프는 새 강령에서 공산당 독재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레닌주의적 당조직원리인 민주집중제의 재고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당기구의 민주적 개혁을 모색했다.

고르바쵸프는 당내 보수파들의 반발을 미리 예견하고, 2월 5일의 중앙위에서 개혁파가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하여 현 중앙위원(정위원 149인, 후보 108인) 외에 비중앙위원 중 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지식인 층과 노동자, 예술인, 언론인 들도 참석, 발언할 수 있도록 확대 중앙위 총회로 성격을 바꾸도록 했다. 그러나 강령초안에 대한 찬반의 격론이 벌어졌는데, 보수파들을 특히 일당독재의 포기와 사유재산제의 도입에 의해 대하여 거센 반발을 했다. 여기서 개혁파의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활기 있는 당에는 권력의 독점같은 것이 필요치 않다」고 확언했다.[67]

2) 二重權力狀況과 多黨制의 出現

1990년 7월, 제28차 공산당 대회를 앞둔 시점은, 각 구성공화국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치구조와 형성되는 즈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에는 이중의 권력이 나타났다. 즉 한편에는 소연방정부와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소연방이 권위를 부정하고 그들 자신의 정책을 추구하는 공화국 지도자들이 있다. 소련에서의 권력위기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및 여타 다른 도시에서의 좌파세력의 승리, 특히 모리스 엘친이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심화되었다.

그런가 하면, 고르바쵸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그의 계획을 공산당과

---

67)안드라미끄 미구라니 얀, "이중권력상황", Moscow News (1990.7.8 ~ 15), 「북방동향」 1990.8. 57면에서 재인용.

사회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는 우파 즉 보수파의 저항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쵸프는 자신을 우파세력과 분리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책임있는 정치세력을 중도 좌파세력으로 결집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68] 이와 연관하여 고르바쵸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민주세력」들 분열이라고 경고했고, 그의 측근인 야꼬블레프는 「사회내의 변화가 이미 역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1990년 3월 공산당이 과거 70년간 누려왔던 권력독점을 폐기한 후 소련은 점차 다당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비록 일부 민주공화국에 1.2년 전부는 야당이 조직되어 공화국정치의 부분적 요소를 기능해 왔지만 러시아공화국에 공산당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출현은 소련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 나라에서 제한적이나마 다당제를 가졌던 시기는 1905~21년 사이였고, 그것마저 정치불안과 혁명적 봉기로 얼룩졌던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다당제의 출현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제도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 소련에서 다당제가 제모습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산당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부여했던 헌법 조항은 폐기되었으나. 아직도 발트해연안의 3개 공화국을 제외한 소련의 대다수 공화국에서 공산당은 권력을 잡고 있다.[69]

28차 당대회 전야의 소련공산당은 급진파와 보수파, 그리고 분열을 피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견지하려는 중도파로 갈라져 있다. 급진파들은 사회민주적 의회정당으로서의 개편을 주장하는가 하면, 보수파는 기존 공산당의 조직과

---

68)안드라니그 미그라니얀, "이중권력상황", Moscow News (1990.7.8 ~15), 「북향동향」 1990.8. 57면에서 재인용.
69)블라디미트 라듀긴, "다당제의 도입 - 소의 득과 실 - ", 「조선일보」, 1990년 6월12일.

이념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한다.

4) 소련 공산당 28차 당대회

28차 당대회는 그것이 향후 소련정치의 방향을 예시하는 결정적 단서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전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지난 7월2일 부터 13일 까지 12일 동안 모스크바 크레믈린궁전에서 열렸다.

이 당 대회에서는 급진적 개혁안을 놓고 保·革간의 첨예한 공방을 계속하였는 데, 고르바쵸프 지도부는 결국 보수파와 타협, 최종 강령선언에는 당초 초안에 담겼던 근본적 개혁내용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당지도부 선출에 있어서는 고르바쵸프가 크게 승리하여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에 매우 유리한 당내 권력구조를 구축하였다. 종반단계에 이르러 옐친 중심의 급진개혁파 「민주강령그룹」이 집단적으로 이탈, 볼셰비키당 사상 유례없는 분당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폐막하였다.

(1) 綱領宣言

당초 고르바쵸프는 소련공산당을 레닌주의와 스탈린 주의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의회민주주의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구상은 「강령선언」 수정안(최종안)에서 관철되지 못하였다. 즉 최종안에는 「공산당은 정권당으로서 소련사회의 모든 것에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여 계속 당의「전위」적 성격을 강하게 함축한 동시에, 당조직원리인 민주집중제도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지켜졌다.

그러나 선언 최종안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든 단계의 소비에트에서 당의 분파와 다당간의 연립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고르바쵸프가 앞으로 옐친등 급진개혁파와 연립정권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70]

---

70)안택원"소련 공산당 28차 당대회 결산 및 향후 전망 ", 「북방연구」, 1990.8. 87~88면

또한 당대회는 고르바쵸프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령기초위원회를 구성, 내년 중반까지 새 강령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강령선언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2) 黨指導部 改編

이번 당대회에서 고르바쵸프 중심의 주도 개혁세력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당내의 예고르 리가쵸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보수세력의 도전을 좌절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고르바쵸프는 7월10일 대의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4분의 3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로 서기장에 재선되었다. 이어 7월11일 부서기장 선거에서 고르바쵸프를 지지하는 신개혁파의 이비시코 우크라이나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이 찬성 3,109 표, 반대 1,309표로 선출됐다. 결선에서 패한 보수파의 거두 리가쵸프 정치국원은 찬성 776표, 반대 3,642표를 얻었다.

고르바쵸프를 지지하는 개혁세력은 당초 당을 실질적으로 지도해 나갈 기구로 정치국 대신 정치집행위원회를 창설하고 서기장을 의장으로 바꾸고, 당의 실무를 총괄할 제1 서기제를 신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수파의 거센 반발을 우려, 서기장제 및 정치국을 존속시키고 제1 서기를 부서기장으로 개칭하는 등 표면상 양보를 하였다. 그러나 서기장 및 부서기장을 당중앙위가 아닌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정치국을 당초 구상했던 정치집행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5개 구성공화국 제1 서기들이 포함되는 23인 규모의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데 성공, 실질적으로 뜻하는 바를 대체로 성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르바쵸프는 그 자신의 당내 권력기반을 정치국이나 당중앙위가 아닌 당대회로 옮겼다.[71]

---

71)"蘇共産黨 대회 결산", 「동아일보」, 1990년 7월 14일

또한 무엇보다 정치국이 제1서기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서 그들의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크레믈린에서 정치국이 보수파의 거점이 될 우려가 없어졌으며, 야코블레프와 세바르드나제 등 종래 정치국원을 겸직했던 개혁주류를 대통령평의회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서 당. 정 분리의 실현과 함께 국가권력의 중심을 당에서 정부로 옮겨놓은 계기를 삼았다.

지금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보유했던 당정치국의 권력이 이제 인사이동을 통하여 대통령 평의회로 옮겨지고 있으며, 사상 처음으로 당정치국에서 총리를 비롯한 정부관료기구 대표(리슈코프 총리, 세바르드나제 외무, 야조프 국무, 쿠루치코프 KGB 의장 등) 들이 빠졌다. 공산당 및 그 정치국의 위상격하가 뚜렷하게 드러났다.[72]

이번대회에서 중앙위원회는 선출방법을 개정, 정부서기장과 15개 공화국에각 5명, 당원 10만명당 1명씩 뽑는 지역대표 311명, 중앙의 당조직, 기관, 각계층 대표(과학 아카데미 포함) 99명 등 모두 4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비지역 대표들은 고르바쵸프 노선을 지지하는 개혁자 및 지식인들로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의 거의 전원 및 중앙위원 50% 교체라는 대폭적인 「물갈이」가 행해졌다.

---

72)「북방동향」, 1990.5. 86~87면

第 4 章 고르바쵸프의 經濟改革

第 1.節 經濟改革政策의 特徵 및 內容

경제위기 속에서 1985년 3월 고르바쵸프가 등장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경제개혁은 지금과 같이 부분적이고, 근시안적인 개혁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계획은 가격설정 생산자재 배분이라는 통제경제의 근간을 자유화하는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것이었다.[73]고르바쵸프는 사회, 경제발전의 촉진(Uskarenie), 구조개혁(Perestroika) 및 개방(Glasnost)이라는 기치아래 포괄적인 경제개혁을 선언하였다. 그의 개혁정책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라는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소련경제를 1970년대 중반이래의 침체의 늪에서 구출하고 서방선진국들 수준으로 다시 접근시키려는 고르바쵸프의 경제개혁은 주로 페레스트로이카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74]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부문에 관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1) 제1단계(1985~1987)는 준비기로서 계획경제의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제반문제의 인식, 그 생성원인의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기간이다.

이 단계에서의 진행사업은 다음 일곱가지로 집약이 된다.

---

73)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쎈터, "소련 고르바쵸프 개방 정책 연구" (서울 : 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쎈터 1990.2). p.81

74)김달중외 「소련의 개혁정책」, (서울:법문사. 1991) P.149

① 국민의식개혁과 금주운동

② 무능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의 대거교체.

③ 모든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④ 소규모 사기업 활동의 합법화.

⑤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증대.

⑥ 세분화되고 다기화된 산업별 부처의 통폐합.

⑦ 국가특정 해외무역업무의 자율성제고.[75]

이 시기의 개혁방침은 생산관계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방법의 개선을 통한,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진보를 추진하면서 경제운영의 중점이 행정적인 운영수단에서 경제적인 운영수단으로의 이행[76] 및 상품 화폐 관계의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의 가속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경제메카니즘이 모색은 부분적으로 개인 노동활동법의 채택, 각종 협동조합 창설에 대한 장려 합병기업 설립을 위한 시책 등 위의 일곱가지의 개별적인 개혁들을 이루어졌지만 전통적인 경제메카니즘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성시키지는 못했다.[77]

2) 制 2 단계 (1988~90년)

고르바쵸프 경제개혁의 실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87년 6월에 열렸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6월 총회이다. 총회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의 가속화, 조악한 발전방식에 최신의 과학기술진보의 성과의 광범위한 도입,

---

75)權錦姬,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연구",(제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2) PP.37~38

76)David Mandal, " Economic Reform and Democracy in the Soviet Union", on Ralph Miliband Leo Panitch, and John Saville (ed), op.cit. p.132

77)장사실, "고르바쵸프 경제개혁의 현국면", 야코블레르의 지음, 신현준편역. 「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와 수용(소련),(서울 : 새길, 1990. P.26)

최신의 성과와 사회주의 장점의 유기적인 결합에 기초하여 집약적인 발전방법으로의 이행을 관건적 사항으로 인식하는 소련공산당의 현대 경제전략이 작성되었다. 총회는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해 스탈린시대에 이루어졌던 국민경제관리에서의 지방행정적 체제의 근본적 변경과 경제적 방법에 의한 국민경제관리로의 이해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78]

즉, "경제관리의 근본적 페레스트로이카"의 채택은 경제개혁의 제2단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 명제들을 포괄적이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관리체계의 창출을 지향하고, 주로 행정적인 지도방법을 경제적 지도방법으로 전환시켜 관리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혁 프로그램이었다.[79]

(1) 2단계의 개혁지침에 대한 내용.

첫째는, 기업경영에서의 자율성에서의 자율성확대이다. 기업은 독립재산과 자기임금조달제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즉 기업은 더 이상 보조금의 형식으로 국가예산의 자원을 받지 않으며 사회적 필요와 기타 수요를[80]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5개년 계획 연차계획을 하고, 임금은 기업의 수입에서 충당된다. 다만 기업은 자산과 토지, 운수, 기타 자원과 노동력의 사용분을 국가예산으로 환원해야 하며 이들은 제품가격 등과 함께 임금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경제수지가 될 것이다.

둘째는, 중앙집권적 관리주의의 정비이다. 민주집중제의 원칙하에 기업이 자주성을 보장하고 중앙은 거시경제의 원리에 치중한다. 자재,기술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자원배분의 전반적 균형에 주력하며 기업은 생산수단

---

78)"페레스트로이카 용어사전. 경제편", 사상문예운동편, 전게서, p.348

79)서울과학연구소, "페레스트로이카와 경제개혁",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서울 : 한울, 1990) P.107

80)기타 수요한 타기업으로 부터의 주문계약과 최종 소비자의 수요를 지칭한다.

의 구입을 종래에 중앙공급제 대신에 기업간 공장도 거래에 의존한다.

세째는, 가격체계의 합리화이다. 가격제도는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함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개혁될 것이며, 기업간의 계약가격이 앞으로 가격형성에 반영될 것이다. 재정 및 금융제도는 계획에 기초한 경제관리체제에 상품화폐관계, 즉 시장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며 전문화된 은행과 보험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네째는, 원자재를 포함한 중간투입물의 기업간 거래확대이다. 다섯째는, 경제관리조직이 정비이다. 관리조직은 산업성-기업으로 단순화될 것이며 전소련기업합동과 같은 중간조정은 폐지될 것이다.그리고 기업간의 활동 및 합작 생산은 허용될 것이다. 기업활동에는 전문화와 기술발전 촉진, 생산성의 연계성, 관리의 용이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연구 및 개발, 투자, 생산, 판매, 서비스를 있는 기업활동들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설치될 것이다. 한편 산업성들은 기업에 대한 종전의 일상적 간성을 지양하고 관련 산업부문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 및 경제개혁 수립의 임무를 지닌 참모본부로 기능한다.[81]

여섯째는, 연구 및 기술개발과 생산기업 부문 간의 협조체제 강화이다.

일곱째는, 독립 채산제의 도입이다. 종래 소련의 기업은 임금, 원자재구입이 기타 거의 모든 비용을 국고로 부터 지급받고 있었으나, 업적불량기업을 이에 대한 반제가 면제되어 실질적으로는 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같았다. 고르바쵸프 서기장에 말하는 완전독립채산제는 이것을 개정해 필요자금은 기업에게 스스로 가득시키는 것에 의하여 코스트 의식이나 기업과 정신을 양성시키는 것이었다.

---

81)소련정부는 또한 1987년 2월 식당경영, 자동차 수리 등을 포함하여 소비재 생산 및 서비스 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사기업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완전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은 ①. 소련의 가격체계의 왜곡이다. ②. 원재료, 자재 공급상의 문제이다. ③. 적자기업의 존재이다.[82]

여덟째는, 새로운 제도 및 경제운용체계의 운용을 위한 학습이다.

아홉째는, 노동의 재조직이다.

기업의 임금 및 상여금 결정권과 함께 노동능력의 재고를 위해 집단 계약제 내지 집단청부제를 도입한다. 사회전체의 화폐, 소득에 상응한 소비상품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며 근로자는 소득을 주택구입이나 사회후생시설 "건립을 위해 대여할 수 있다. 소비재 생산과 서비스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히 발전시킬 것이며 개인의 노동행위를 장려한다.[83]

한편, 제2단계의 또 하나의 성과는 협동조합법의 제정과 농업개혁을 들 수 있다.

198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협동조합법은 사실상 국가화되어온 기존의 협동조합을 탈국가와 시켜 새로운 종류의 협동조합의 형성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반경제의 일정부분을 합법화하여 그것을 사회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주민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증대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한 것이다.[84]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의 핵심은 소련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기업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다. 1987년 6월에 제정된 이 법은 기업경영의 자주성 확대와 기업경영이 경제적 책임. 즉, 기업의 손익계산원리(Khozrasoht)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國家企業法의 基本內容을 보면

---

82)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전게논문, PP.84~85
83)장사실, 전게논문, P.28
84)조인석, " 소련 사회주의 경제개혁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서울 : 현대 사회 연구소. 1988). p.56

①. 노동자가 기업의 자주적 주체가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②. 모든 기업은 손익계산원리에 의해 운영하고 기업법 경영실적에 따라 임금기금, 사회발전기금, 과학발전기금 등의 모든기금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

③. 기업경영은 중앙의 행정지침과 노동자의 자주관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④. 모든 관리요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2단계 기간 중에는 모든 기업이 독립채산제를 채택, 운영토록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련경제체제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변화는 너무 급진적이고 빠른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구질서와 새로운 제도 그리고 신. 구 법령과 지침간의 혼합과 상충이 여하히 조정. 통합될 것인가가 제 2단계 개혁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85]

(2) 제2단계 경제개혁 실시에 따른 문제점

첫째 : 제2단계 경제개혁 실시로 인해 물자부족의 격화, 인플레이션의 진행. 확대된 재정적자의 현저화. 민족문제의 격화. 대규모 파업의 발생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 제 2단계 경제개혁 구상은 그 나름대로의 통합성과 정합성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실시과정은 그것의 구성요소들의 불 균등한 전개와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의 출현(예. 임대차 관계. 주식회사 등에서 보여지는 탈 국가화)에 의해 당초의 종합성과 정합성을 지닌 경제개혁 구상이 요청되게 되었다.

---

85) 權錦姬, 전게서 논문. pp. 38~39

세째 : 낡은 경제메카니즘을 타파할 필요성과 그것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그 구상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경제 등과 같은 더욱 구체적인 전개도(full-print) 요청을 하고있다.[86]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위기의 극복과 경제개혁 진행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시책체계로서의 경제개혁을 요청한다.

第 2. 節 제12차 5개년 계획 (1986-1990)의 주요목표 및 성과

고르바쵸프는 서기장에 취임하면서 제12차 5개년 계획(1986~1990)에 자신의 정책구상을 크게 반영토록 하였고 또한 1986년 부터 2000년 까지의 15개년의 장기계획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12차 5개년 계획과, 2000년가지의 장기계획은 고르바쵸프 정권의 경제 개혁내용을 반영한 「고르바쵸프의 경제, 사회발전계획」이기도 한 것이다.

제12차 5개년 계획은 본 경제개혁의 준비단계(1985~1987) 및 재도약으로서의 과도기 (1988~1990)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 계획의 목표달성여부는 경제개혁정책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計劃目標의 신중한 上向調整

<표 4-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의 목표치는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실적을 능가하게 책정되었다. 국민소득의 경우 연간 3.5 ~ 4.4% 및 2.8% ~ 3.2%를 능가하는 것이다.

---

86)장사실, 전게논문, p. 28

도한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경우 연간 3.9 ~ 4.4% 및 2.8% ~3.2%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1976 ~ 85년의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능가하도록 계획되고 있다.[87]

<표 4 - 1 > 소련의 主要 經濟指標 變動 推移

(단위 : %)

계 획 기 간	1966 ~ 70	1971 ~ 75	1976 ~ 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6 ~ 1990 (第12次 5個年 計劃)
구 분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실적	실적	실적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평균
자출국민 소득	7.1	7.0	3.9	3.2	3.5	3.5	2.6	3.5	3.1	3.8	4.1	3.5~4.1
공업 총 생 산	8.4	7.4	4.4	3.4	2.9	4.2	4.1	3.9	3.9	4.3	4.9	3.9~4.4
생 산 재			4.7	3.3	2.7	4.2	4.1	3.9	3.9	4.1	4.3	3.7~4.2
소 비 재			3.9	3.5	3.5	4.3	4.1	4.0	3.9	4.9	4.3	4.1~4.6
농 업 총 생산	3.9	2.5	1.7	(-)1.	5.6	6.1	(-)0.1	6.7	0.0	4.4		2.8~3.2
총 투 자 총액	7.4	7.2	3.4	3.7	3.5	5.6	1.9	3.4	3.0	7.6		3.6~4.4
공업의 노동 생 산성			3.2	2.7	2.1	3.6	3.7	3.7	3.5	4.1	4.8	4.2~4.6
소매 상품 판 매 량			4.4	4.3	0.3	2.7	4.2	5.2	4.2	3.6		
1인당판매 실질 소득			3.4	3.3	0.1	2.0	2.9	3.3	2.5	2.5	2.3	5.0~5.9
무 역 량			13.2	16.6	9.0	6.6	9.6		1.3	4.9	(-) 7.85	2.5~2.8

자료 : (일본)ン連邦貿易會, 「調査月報」, 1986.2 및 6.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치들은 종전의 실적치들을 크게 능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심스럽게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련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세가 1986년을 계기로 V자형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되 과거와 같은 현실성 없는 과대한 목표설정을 피하는 대신 1980년대 후반기를 「조정기」로서 활용하며 성장잠재력을 재정비, 개발하고 1990년대에 대처해 나간다는 고르바쵸프의 장기적 구상을 반영하

---

87)김달중외, 전게서. p.152

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1986~2000년의 장기계획에서 볼 때 1986 ~ 1990년 기간 중의 제 12차 5개년 계획을 초기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이 기간 중의 연료별 성장률 목표가 < 표 4-2)에서와 같이 연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은 제12차 5개년 계획의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4-2> 소련의 제12차 5개년 계획의 연도별 목표와 실적.

<표4 -2>　　(단위 : %)

연도 /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국민소득	3.8	4.1	4.0	2.3	4.1	4.4	4.2	2.5	4.3	
공업총생산	4.3	4.9	4.4	3.9	4.5	3.9	4.7	2.7	4.9	
(생산계) (소비계)	(4.3) (4.4)	(5.3) (3.9)	(4.3) (4.5)	(3.8) (4.2)	(4.4) (4.7)	(3.5) (5.1)	(4.3) (5.5)	(1.8) (5.3)	(4.7) (5.5)	
농업총생산		5.3		0.6	6.3	0.7				

자료 : (日本)ン連 東歐貿易會, 「 調査月報 」, 1986. 9 및 「 ン連經濟速報 」, 1989.2.15.
註 1): 목표치는 연도별 목표치의 上限을 기준으로 한 것임.
註 2): 1989년 실적치는 1~6월의 前年 同期 對比임.

2 적극적 투자정책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투자총액은 < 표 4-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실적을 능가하는 연평균 3.6% ~ 4.4%로 증가하도록 계획되고 있어, 특히 1986년의 투자규모는 1985년보다 7.6%나 대폭적으로 증대되도록 계획한 바 있다.

1986년도의 이와 같은 투자증가율 목표는 과거 10년 이래 최고의 증가율로서 이는 초기단계에서 요구되는 성장잠재력의 구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88)

3 農業生産의 의욕적 增大政策

<표4-1>에서와 같이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농업부문은 연평균 2.8~3.2%의 생산증가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실적에 비하면 매우 의욕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련정부는 그 동안 곡물생산량을 공표해 오지 않았는데, 이는 곡물생산의 부진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1976년 이래 경제침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농업생간의 부진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는 점에서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86~1988년까지의 실적과 극히 단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농업부문의 실적 등을 토대로 그 간의 성과를 나타낸다면 <표 4-2>에서와 같다. 1986~1989년의 기간 중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3.3%를 기록함으로써 목표치 3.5%~4.1%의 下限을 근소하게 下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볼 때 적어도 1986~1989년에 기간 중 계획치의 달성에는 과히, 성공적이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성장류은 1981~1985년의 기간 중에 이룩된 연평균 3.25의 성장률과 실질적으로 일치되는 것으로서 고르바쵸프의 의욕적 경제개혁정책이 뚜렷이 성공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부문의 경우 1986년 만을 예외로 연도별 실적은 목표치에 계속 미달해 왔고 특히 1988년 경우 실적치(2.7%)는 목표치(4.75)의 절반수준을 근소하게 능가하는데 그친 바 있다. 공업부문의 이러한 부진은<표 4-2>에서와

---

88)김달중외, 전게서, pp.153~154

같이 소비재부문 보다는 생산제부문에서의 부진이 주 원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88년의 경우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재부문의 경우는 생산재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며, 또한 목표치 4.1~4.6%의 상한에 이르고 있다.[89]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1986년의 경우 1982~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나 1987~1988년 중에는 연간 0.6~ 0.7% 의 극히 부진한 생산증가율을 이룩하는데 그침으로써 농업부문의 심각한 침체야말로 고르바초프의 제12차 5개년 계획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두고 있어 극히 주목되고 있다.

결국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제12차 5개년 계획이 실행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침체로 인하여 큰 위협을 받고 있고, 이는 1976~1985년 중의 소련경제침체가 주로 농업부문의 침체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감안할 때 소련의 새로운 개혁정책은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第 3 節 고르바초프 經濟 改革의 장래

고르바초프는 과거 경제개혁의 실패가 시장기구에 의존한 의사결정이 분권화를 적극도입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였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의 내용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

89)김달중외, 상게서, pp.154~155

<표4 - 3> 소련과 헝가리의 경제개혁 비교

부 문	헝 가 리	소 련
제조업부문		
관 리 자	1985년 이래 고용인이 선출(국가는 거부권이 있음)	당이 임명
생산결정	기업이 결정	국가가 결정
요소결정	시장계약식	중앙이 배분
가격결정	거의 기업이 결정(당국의 승인필요)	국가가 결정
임금과고용	직업선택자유 임금계약이 국가기업에 한함	국가가 임금결정 보너스는 기업이 결정
신 용	중앙집중화폐제도, 중앙신용배분, 증권시장합법,국가소유금융기관	중앙집중화폐제도, 중앙신용배분 증권시장 없음
투 자	중앙집권적 1/5이 기업자금으로 투자됨	중앙집권적
농업부문		
협동조합	기업은 원하는대로 판매 계획생산은 폐지됨.	중앙계획하에 생산과 투하의 할당
국가농장	원하는대로 판매 계획생산은 폐지됨	중앙계획하에 생산과 투하의 할당
사 농 업	생산에 제한없음 시장가격결정	제한없음 시장가격결정
협동조합	국가기업과 비슷한 제약 시장에 더 의존함 기업소유의 기본형태로 될 것임	거의 존재하지 않음
민간부문		
합 법	경제의 미소부문 국가의 허가필요 가족과 그 외 7인까지 고용가능	거의 존재하지 않음
비 합 법	GDP의 20% 합법화 노력 2차 소득근거 대부분의 생산은 가계의 사용용	GDP의 상당부문 차지 합법화노력

자료 : Leggett(1988)

위 개혁의 직접적인 분석은 현재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시도로 개혁의 평가전망을 살피도록 한다. 여기서 간접적인 시도란 같은 사회 주의 국가로써 일찍 개혁을 시작한 헝가리와의 비교를 말한다. 헝가리의 경제개혁은 이미 30년이 되었다.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광범위한 개혁이다. 헝가리의 개혁은 이제 시장 사회주의가 되었다. 리게트(Leggett 1988)는 헝가리 경

제학자 코르나이(Janios Kornai)의 모형을 이용하여 소련경제를 헝가리와 비교하였고.<표 4-3>이 그내용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련의 개혁은 헝가리와 비교할때 빈약하다.

이 비교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헝가리의 개혁은 30년이 되었지만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4~5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헝가리의 개혁은 코르나이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절반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헝가리 경제는 간접적인 당국의 조정하에 국가부분과 강력한 당국의 지배하에 있는 시장중심의 민간부문의 혼합체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소련의 개혁은 더욱 미미하다고 평가 할 수 밖에 없다. 서방학자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비관적이다. 슈레더 (G. Shroeder)는 소련의 개혁은 개혁도 아니고 급진적이지도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휴트(E.A,Hewett)도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초기단계에서 이미 실패의 조짐이 잠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당국이 성장율이 지나치게 압력을 가하여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는, 담당 부서장 들에게 보내는 지시및 신호가 혼동된다. 즉 기업활동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업 성과에 최종 책임을 지라는 등의 지시는 일관되지 못하다. 셋째는, 중앙 당국의 조직이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복잡하다는 등을 내새우고 있다. 소련의 경제학자 칸트로비치(V.KAntrovich)도 명령 경제에 몇몇 시장기구의 요소를 도입했다고 충분하다 볼 수 없고, 전체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어째서 고르바초프는 과감히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선 소련의 경제는 "합리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개혁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슨(Hansen)에 의하면 "합리주의자"란 중앙개혁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시장주의자"는 소수이다.

고르바 초프는 경제학자들이 개혁에 도움되는 새 방법과 새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하고 있을 정도이다. 두번째 이유는, 현재의 개혁과 코시킨 개혁의 유사점을 찾을수 있다.

슈레더에 의하면 현재 소련 지도층은 1965년 코시킨 개혁이 적절 하였는데 집행에서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코시킨 개혁이 실패한것은 충분한 시장기구 요소를 도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단순한 집행의 문제가 아니였다. 이밖에 소련경제의 전도가 불투명한 것이 개혁의 성과를 감소 시키고 있다.

앞으로 수 년간 새노동력이 줄어들 것인데 이것은 원자재의 생산비를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것이다. 국제 원유값은 계속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소련의 국제수지에 부(負)의 효과를 줄것이다. 개혁에 불만있는 계층이 형성되어 정치적으로 개혁히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이것은 지금까지 소련의 전통이 되어왔다. 분권화의 시도는 직장, 신분, 권력, 특권을 위협하므로 중앙 계획당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실업 ,인플레이션,소득 차이 발생을 소련 국민이 어떻게 극복 하느냐도 미지수이다.

第 5 章 고르바쵸프의 改革政策의 特性과 限界

第 1 節 改革政策의 特性

소련경제는 지난 1960년 중반 이후 성장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어왔다.이러한 경제침체는 개혁 이전의 사회구조적인 모순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현 지도층이 극복해야할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고르바 초프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이면에 놓여있는 개혁의 본질일 것이다. 그러므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개혁정책이 지니고 있는 성격 ,개혁의 유형별 형태 그리고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의 한계및 평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改革의 特性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서구적 의미의 개혁 (Reform),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장기적인 정체상태로 부터 탈피하려는 하나의 혁명적 성격 또는 새로운 국가로 도약해 보려는 혁명으로 파악할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보다 더 사회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바탕을 둔 개혁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급격한 변환는 소련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혁명적 과업이다 라고 확인하고 있다.[90]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격을

---

90)문용식, "사회주의 논리와 쟁점", 사상 문예운동 편집부편 , 『사회주의 대 개혁의 논리』,(서울:풀빛,1990), p384

혁명으로 규정짓는것은 그것이 원대한 목표를 지니며 ,근본적이며 비타협적인 변화를 추구할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르기까지의 모든영역에 걸쳐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페레스트로이카가 혁명이자 과정이기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점진적인 개혁방식을 채택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은 기존의 많은 부분에 대한 과감한 파괴와 단절을 전제로 한다.페레스트로이카는 특히 소비에트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갖가지 장애물,낡은 경제 관리방법, 독단적이고 상투적인 악습등을 단호하고 근본적으로 제거 시키는데 그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듯 혁명적 과정인 이유로 전체 소비에트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이해관계를 미치고, 낡은 것과 새로운 것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며 충돌을 초래할 수도, 구태의연한 사고에 익숙한 자들에게 일대 타격을 가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추진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이해관계와 갈등, 충돌, 타격은 소비에트 체제를 새로운 개척지로 이동시켜 그것을 한단계 더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본다.

고르바쵸프는 이처럼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비에트체제의 전반적인 개혁과 재편을 겨냥한 혁명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또한 '위로 부터 혁명' 과 '밑으로 부터의 혁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고르바쵸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비에트체제가 공산주의로 이해하는 과정에 위치한 '과도기' 단계로 파악한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진보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역사적 단계'로 인식하면서 이 단계는 그 성격상 사회주의 발전과정에

위치하는 하나의 과도기라는 것이다.[91]

따라서, 그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정책은 소련경제의 활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개혁의 폭이 크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체제변화의 심도가 깊기 때문에 다른 공산권이나 자본주의 국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종의 체제내적 이질변화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의 특징적 성격을 보면 ①. 이데올로기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②.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 사회개혁을 병행하면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변혁적인 다원주의적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정보의 개방과 그에 따른 참여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④. 대서방에 대한 개방과 초호적 협력을 강조하는 등 평화공세적 경향을 추구하고 있다. ⑤. 수동적 자세를 탈피하여 개혁적 의지를 담고 있는 능동적 개혁 성격을 띠고 있다.[92]

2. 改革政策의 類型別 形態

소련에 있어 개혁의 유형에는 세가지가 있다. 즉 정책개혁, 조직 및 행정개혁, 그리고 구조 및 제도개혁이 있다. 정책개혁은 장기간 계속되는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주요수단을 자원의 재분배이다. 조직 및 행정개혁은 정책결정의 절차를 변화시켜 능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주요 수단은 기존의 행정단위의 재편이다. 구조 및 제도개혁은 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기존제도의 권력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구조 및 제도개혁이 급진적 또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1)고르바쵸프, 하용출역,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사계절, 1988), pp.68~69
92)이상인,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의 성격과 전망", 「국제문제」, (서울 : 국제문제연구소, 1988.7). p.34

오늘날 소련의 개혁은 사회 경제적 발전의 가속화를 통하여 사회를 질적으로 변모시키고 경제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조 및 제도개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산체제와 마찬가지로 소련체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정치의 우월성이다. 이 우월성은 네가지 전제로 표현된다.[93]첫째. 경제성장은 지도부에 본질적으로 주요하며 직접 소련경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맡겨질 수 없다. 둘째, 경제의 우선순위는 지도부가 엘리트의 정치권력에 손상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입안된다. 세째, 경제성장과 그 목표의 달성은 지도부와 에리트의 정치권력에 손상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입안된다. 네째, 경제성장과 그 목표의 달성은 지도부와 엘리트의 우선적인 일이지만 경제요소와 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목표의 수정과 목표달성에 사용되는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근본적인 경제적 결과를 갖게되는 급진적 정치개혁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94]

침체된 소련경제의 해결방식으로 급격한 개혁정책을 통해 소련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뒤따른다. 왜냐하면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가의 정치적 존립이 현실적으로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급진적 수단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정책결정과정에 관련시켜야 한다. 즉 경제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구조 및 제도적 개혁외에는 정치권력과 조직 및 행정개혁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

93) Seweryn Bialer. Joan Afferica. " The Genesis of Gorbachev's world", ion Foreign Affairs Vol, 64, No.3. 1985. pp.609 - 617
지충남, "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전남: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1.8). pp.20~21 재인용
94) Ibid, 전게서. p.610

第 2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限界

어느 한 국가가 계획을 세워 그것을 국가정책으로서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정책에 대한 한계가 노출되기 마련이다. 특히 소련이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개방과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민족분규의 발생, 노동자의 파업, 보수와 개혁파간의 대립 등 그 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되었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은 사실상 극복해야 할 내재적요인과 주변적요인을 과다하게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은 오직 보다 과감한 정치개혁의 선도로 경제개혁을 가속화 시킴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산주의는 스스로 개혁될 수 없으며 다만 해체될 뿐" 95)이라는 질라스의 경고와 같이 페레스트로이카가 공산주의의 근본적개혁이 아닌 改善만을 지향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96)

1991년 8월 발생한 보수 강경세력의 정변사태는 이와같은 경고의 현실화에 다름 아니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과 실천은 아직 확고한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라는 레닌의 이론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97)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는 탈이념의 역동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

95)Z. "To the statin Mausoleum" , 「Dae dalus」 (1990/winter. p.295~344)
96)「Time」, 1990년 2월19일.
97)1987년 11월 2일, 「러시아 10월혁명 70주년」 기념식에서의 고르바쵸프「연설문」 "페레스트로이카는 왜 필요한가," 「소련 주요논문선집」, (서울 : 극동문제 연구소, 1988), p.244

소련의 개혁정책은 체제내적 동질변화가 아닌 체제내적 이질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원리를 완전히 탈피하지 않으면 많은 한계성을 지니게 된는 것이다.

소련경제의 한계점을 보면 소련경제의 구조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소련경제의 특징은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등을 들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구조적 요소가 소련경제의 침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은 시장과 자본주의의 경제매카니즘을 그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접목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적 경제도구와 시장은 자본주의 발생 이전에 존재했으며, 국유화된 사회주의경제가 다양한 경제모델과 결코 타협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경제적 합리성은 증대 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정책결정이 항상 정치력의 행정 및 경영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갖는 한계이다.[98]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유재산제의 토대 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채택한 시장경제계획안은 자본주의체제의 시장경제요소를 일부분만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소련경제를 인플레이션의 심화, 국내식량사정의 악화, 국가재정 적자의 증대, 소비물자의 수급, 불균형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소련정치의 한계점으로는 소련내의 보수세력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소련공산당의 고위 간부로서 소련체제의 기득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소련의 특권층으로 불리우는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세력을 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그 수는 약

---

98)이승희, "페레스트로이카의 발전단계",「통일문제연구소」, 1권 3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p.224~255

75만명이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약 300만명으로 전소련 인구의 1.5%에 달하고 있다. 그들 또한 대부분 소련내의 기득권자로서 소련내의 큰 변화보다는 보수성향이 강함으로 해서 개혁이 추진을 방해하는 입장에 있다.[99]

그리고 대통령제의 도입이 그 이전까지 당과 국가기능의 분리를 통해 소비에트를 최고권력기관으로 위치지운 개혁의 방향과 이론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비록 대통령제의 도입이 현재 소련사회가 당면한 각층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구성된 정치적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이론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100]

第 3 節 고르바쵸프 改革政策의 展望

1990년 계기로 소련의 개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적 소유의 확대와 다당제의 도입, 당기구의 개편 및 종교자유의 포괄적 용인, 대통령제의 도입, 시장경제의 이행, 신연방조약의 채택등은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소련의 경제, 정치, 사회, 민족문제 등에 대해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소련을 10월 혁명과 그 직후의 내란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혼란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 경제개력의 부진, 민족분규 등 문제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99)개혁정책에 대한 소련사회 각 계층의 태도는, 타치아나 자슬라 프스카야, "소련사회그룹 별로 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태도", 「공산권 연구」, (서울: 1988.11)
100)권경복, "고르바쵸프체제의 소련공산당 개혁", 「북한」 통권 231호, (북한연구소, 1991.3.), p.170

오늘의 소련사태는 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대해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의 고수를 원하는 보수파와 이에 반대하는 개혁파의 마찰이 주된 원인이다.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은 개혁초기부터 표면화 되었지만, 1990년 말에는 이들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었다. 이는 그 동안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온 고르바쵸프가 연방붕괴 위기와 식량부족 등의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수노선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보수파는 고르바쵸프의 이러한 딜레머를 자신들의 입지강화 기회로 이용하여 개혁파인 야코블레프 전공산당 정치국원, 세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 아발킨 전 부총리 샤탈린 전 대통령 경제위원회 위원등 자유주의 사고를 가진 개혁파 측근들을 연방정부 개편과정에서 거세하였다. 반면에 이바시코 소련공산당 부서기장, 야나예프 부대통령, 보리스푸코 내무장관, 드리드리 야조프 국방장관, 크류츠코프 KGB의장등 보수파가 연방정부의 권력조직을 독차지하였다. 또한 과거 소련의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을 대체하는 세 기관의 소련의 외교와 국방정책은 물론, 경제문제 및 법질서 유지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게 될 보안위원회의 의석 8석중 보수파가 7석을 장악함으로써, 고르바쵸프의 정치노선이 점점 보수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1]

그러나 고르바쵸프가 보수파와 개혁파 양자중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었던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고르바쵸프가 과도기의 순탄한 이행을 위해 보수파와 손을 잡은 뒤, 이후 이들을 거세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고르바쵸프가 단

---

101)국가보안위원회의 구성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야냐예프 부대통령, 파블로프 총리 , 베스메르트니호 외무장관, 푸고내무장관, 야조프국방장관, 바카틴 전내무장관, 프리마코프 대통령보좌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중 바카틴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보수파이다.

지 보수파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보수와 개혁파 간의 중재자로서 권력을 유지해온 고르바쵸프는 개혁파들의 사실상 유일한 반격의 창구인 언론의 목을 조임으로써 제어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고르바쵸프는 연방의 유지와 질서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당내 보수세력과 공동의 이해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유혈진압이 자행된 것도 고르바쵸프가 보수파에 기울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2]

결국, 고르바쵸프의 보수선회는 그것이 단기전술이라 하더라도 소련사회의 향후 민주화에 커다란 후퇴를 가져오며 보수에서 개혁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또다른 권력투쟁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1. 蘇聯事態 以後의 韓·蘇 關係

한. 소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도 이미 소련은 경제우선주의를 내세워왔고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소련의 경제 우선주의는 더욱 적극화될 것이며, 한. 소간 경제협력은 소련의 국내정치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적극화될 것이며, 한. 소간 경제협력도 소련의 국내정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소련이 시장경제로서 급격한 전환 등 경제개혁이 급진전되고 미·일·서유럽 국가들의 대소 지원이 본격화 될 경우 한국은 이미 마련한 대소경협의 유리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소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옐친 등 급진개혁파의 주도로 소련 국내정치가 안정될 경우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소련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유도

---

102)<조선일보>, 1991년. 3월 10일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쿠데타 실패후 소련이 서방주의로 대폭 경사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앞으로 한. 소관계는 서방적 일원으로서의 동료의식을 갖게 될 것이며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외교와 관련 소련의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추세가 이제는 對 한국 경사로 기울어 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리고 쿠테타 실패 후 등장한 과도체제 뿐만 아니라 새 연방 체제를 구축하는 경제공동체 조약이나 연방조약 초안이 모두 공화국 주권적 내용으로 되어있어 우리는 앞으로 연방보다 실권을 갖게하는 러시아 공화국과 외교를 강하게 나가야 할 것이다.

2. 옐친 러시아 體制改革의 전망.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시작된 구소련체제의 개혁운동은 1992년에 들어와 옐친 주도하에서 제 2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단순히 개혁 주도의 세력이 바뀌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1991년 말 소연방의 해체이후 개혁을 둘러싼 러시아의 정치적 , 경제적 상황이나 당면과제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는 점에서 두 시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고르바쵸프 집권하에서의 개혁은, 특정의 정치경제체제를 향한 확고한 방향의식 속에서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공산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교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고 개혁노선에 대한 보수 - 중도 - 개혁세력간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체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고르바쵸프정권의 우선적 당면과제로 남아 있었다.[103]

---

103)이에 대한 러시아 내부의 분석으로는 A. Simonia, shito Mui pastroili(Moscow: progress, 1991) Aleksandr Yakovlev, Muki prochtyeniya Buitiya (Moscqwa: Novosti, 1991. 참조)

그러나 체제개혁 방향에 대한 이같은 논쟁은 소연방 해체 이후 민주개혁 세력이 주도하는 러시아에서는 더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에 따르는 실질적 문제들이 논쟁의 촛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옐친정권의 경우 이들 목표를 위하여 정치.경제 등의 사회, 각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던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창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

1992년에 들어와 러시아사회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증되면서 옐친을 비롯한 구민주 개혁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에 대해 그동안 품어왔던 막연한 신념이 도전받고 있고, 이는 러시아의 개혁을 주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장경제개혁의 성공을 사활적 과제로 삼고 있는 옐친 정부로서는 경제구조의 대변화에 따른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여 신속안 경제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러시아대회에 등장 중인 민주정치질서를 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4월 제6차 러시아 대의원회의 (Congress of people's Deputies)이후 옐친정부는 자유민주 정치질서에 대해 과거와 달리 모호하고 혼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개혁과 정치민주화의 두 목표사이에 적절한 타협내지 일방적 선택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104]

러시아 체제개혁의 방향모색에 있어 첫번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개발독재론의 유혹에 대해 개발독재모델이 러시아에 적합치 아니하며, 그 이론이

---

104)옐친정부의 혼란된 모습은 러시아 대위원회의 (Congress of people Duputies)에 대한 태도로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6차 대의원회의 종료시에 옐친은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수정으로 대의원회의를 해산하는 것에 반대하고 의회세력과 협력할 것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 대의원회의를 폐지할 가능성이 많은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ITAR-TASS, 1992년, 4월30일)

강조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정치 민주화간의 갈등관계 역시 이론적 근거가 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근대화 과정에서 두 목표사이에 택일을 강조해온 기존의 분석시각을 탈피하여 정치참여와 정치 다원주의가 진행되더라도 국가주도의 경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살펴보며 역사적으로 급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개혁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추진된 예가 드문 것이 사실이나,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 두 목표가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개발독재모델의 유혹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보며 중요한 것은 현재 러시아 체제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엘친정부의 정책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상반기에 엘친정부는 계속되는 경제위기에는 불구하고 시장경제개혁과 민주정치개혁을 추구해 왔다. 이같은 자세는 과거 공산주의 보수세력과의 투쟁에서 엘친이 약속해 온 개혁 노선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를 조건으로 IMF와 서방국가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요구에 기인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엘친의 정책적 의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체제개혁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국내정치에 새로 등장하고 있는 경쟁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점에서 엘친정부의 급진적이고 서구의존적인 개혁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개혁 신중론자 그룹의 정치적 동향이 주목된다.[105] 앞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서방으로 부터의 경제원조가 미흡할 경우

---

105)이들 개혁중신론자들은 시장경제개혁 자체를 반대해온 러시아사회내의 보수세력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주로 Arkadi Volsky 를 회장으로 하는 러시아기업대표연맹(Russia's Uma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과 러시아의회내의 온건개혁론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은 1992년 5월6일 개혁에 관한 중도세력을 규합할 단체의 준비모임을 가졌고 앞으로 정당으로 발전할 경우 Aleksnadr Rutskoi 러시아 부통령과 Nikolai Travkim 러시아 민주당 당수와 같은 정치적 인물들도 이에 참가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러시아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 개혁 신중론자들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106] 그러나 이같은 타협이 일부 관찰자들이 염려하듯 반드시 개발독재 모델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타협내용은 엘친의 민주정치 질서에 대한 신념과 국내정치 집단들에 관한 그의 정치력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106)러시아 사회내의 개혁중신론자들의 요구가 이미 엘친정부에 의해 수용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엘친정부는 재정위기에 잇는 국영기업에 대해 세금감면과 신용대출을 증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엘친 자신도 내각 개편시 산업경영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자를 입각시키기로 약속하였다.(ITRA - TASS, 1992년 4월 4월24일). 이같은 조치는 시장경영에 의한 부실기업의 자연도태를 강조하던 러시아 정부의 개혁정책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Arkadii Volsky와 같은 개혁신중론자들의 요구에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Rabochaya tribuna, 1992년 3월31일. 참조

第 6 章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1985년도 고르바쵸프의 소련공산당 서기장에의 취임과 그 이후의 변혁의 제과정들을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추적해 보고 이를 통해 "구체제의 타파" 와 "신체제의 창설"을 규명해 보았다.

지난 6년간, 고르바쵸프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개혁정치는 매우 혁명적인, 체제자체의 변동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추진하는 주체세력은 구체제의 엘리트 내부에서 위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체제변혁에 적대적인 제반 환경 속에서 점진적이고 기본적으로 관리주의적인 방식으로 변동을 이루어가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르바쵸프는 공산당 서기장의 손으로 공산당의 권력을 잠식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적 맥락과 과제수행간의 모순, 여전히 생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체제를 해체시켜 나가야하는 어려움, 그리고 개혁과정에서 보수세력을 동원해야하는 딜레머가 발생했다. 이와같은 딜레머는 고르바쵸프로 하여금 일종의 균형정책, 즉 보수파와 급진개혁파 사이의, 대중이 동원과 통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하에서 주도권을 극대화시킨 나가야만 했다.

이러한 균형은 소련에서 상당기간 유지되었으며, 소련 보수세력의 정치적 취약성과 전통적인 정치문화는 위로부터의 개혁조치가 보수반동이나 대중의 급진주의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점진적이고 관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구심력으로 작용했다.

소련의 보수관료는 페레스트로이카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방해했다.

구체제의 억압기제와 동의기제 - 묵시적 사회계약 - 에 묻혀있던 제반모순이 폭발하게 되고, 그 결과, 정치세력의 양극화와 통제범위를 넘는 대중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국가는 통치능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쿠데타라는 소련사태의 파국적 상황이었으며, 그 이후의 상황전개는 지난 6년간의 페레스트로이카 과정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국면이 형성되어, 옐친이 과도체제가 러시아 공화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은 세계를 뒤흔드는 강도 높은 지진이었으며, 그 여진은 한반도에도 미치어 고르바쵸프의 대외경제 개방노선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이후의 한·소 경제협력 확대를 가져왔다. 중국에 이은 소련의 개방은, 개방을 공산권의 전반적 추세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 개발 합작 등 남북공동 시베리아 진출 제안은 북한이 공산권의 개방추세를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쵸프의 민주화 개혁은 김일성 신격화와 부자세습의 필요에서 볼 때.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사회주의 방향의 경제개혁 또한 북한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개혁보다는 수용잠재성이 높은 것이다.

고르바쵸프의 시장사회주의 민주화와 이데올로기 외교지향은 김일성의 북조선과의 거리를 넓히는 반면 한국과의 대립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군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상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이 존재하는 한, 소·북한 군사협력은 있을 수 밖에 없지않느냐는 입장이다. 소련은 특히 일본의 군사적 증강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소. 북한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결국,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정책은 국제정치상, 동·서냉전 종식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신사고 외교정책을 수행하여 국제질서 및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미.중.소의 3각 화해는 한반도 냉전의 기본요인의 하나인 주변적 긴장을 근본적으로 완화시켰다.

또한 " 실존하는 사회주의"가 파산하는 사회주의"로 변신하게 된 원인은 나라별 특성이 있겠지만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내적인 것인데 동유럽 각국의 사회가 안에서 부터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점화되어 전 東 유럽으로 전파된 사회내부의 변화는 제일 먼저 경제분야에서 체제가 붕괴되는 것부터 시작했으며 고르바쵸프 집권이래 추진되어온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의 영향은 결정적으로 동구 유럽의 변화에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國內書籍

1) 單行本

1, 강인덕 편, 「페레스트로이카 : 소련주요논문선집」,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8. 고르바쵸프, 하용출 옮김, 「페레스트로이카」, 광주 : 사계절, 1988

2, 극동문제연구소 편, 「소련.동유럽 총람」,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9

3, 김달중 外, 「소련의 개혁정치」, 서울 : 법문사, 1991

_____편 「동구.소련관계와 개혁정치」, 서울 : 법문사, 1988

4, 김부기 편, 「러시아 혁명기의 사회와 문화」, 서울 : 민음사, 1988

5, 김태구,박병훈 편저, 「비교공산주의」, 서울 : 중앙교육문화, 1989

6, 김학준, 「러시아 혁명」,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6

7, 동아일보편,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 서울 : 동아일보사, 1991

8, 레오날드 샤피르.양흥모 편, 「소련 공산당사」, 서울 : 문예예술사, 1986

9, 미하일 보스렌스키, 홍순호 역, 「노멘클라투라」, 서울 : 평민사, 1982

10, 사상문예운동편집부 편,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서울 : 풀빛, 1990

11, 서울대학교 사회주의 연구팀 편, 「사회주의 개혁논쟁」, 서울:형성사, 1990

12, 송택구.조범순, 「현대소련정치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88

13, 안택원, 「소련, 그열정과 좌절」, 서울 : 인간사랑, 1989

_____편저 ,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14, 알랙산더 달린 外 , 변진홍 옮김 「고르바쵸프 시대」 서울 : 문우사 , 1989

15, 최노석 , 「미완의 혁명」, 서울 : 모음사 , 1990

16, 최 승 , 「소연방 70년사」, 서울 : 슬라브 연구사 , 1988

17, 최종기 , 「현대소련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88

18, 프리마코프 外 솔밭 편집부 편역 , 「현대소련의 변혁이론」 서울 :솔밭 1989

19,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서울 : 한울 , 1990

20, 한겨레사회연구소 엮음, 「한겨레 평론」, 서울 : 이론과 실천 , 1990

21. 한국언론연구원 편 , 「사회주의 국가의 이론」,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편 ,1989

22, 홍현기 ,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 서울 : 태백 , 1988

23, 하용출 , 「소련의 개혁. 개방 한반도」 서울 : 국토통일원 , 1988

24, 한국경제정치학회편, 「國際政治論叢」,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1992 ,제32집 1호)

2) 論文 및 雜誌 , 新聞

1, 고르바쵸프 , "재편과 당 간부 정책에 대하여 :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1월 총회보고, 「중소연구」. 11권 2호 , (서울 : 한양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 , 1987)

2, _____ , "제19차 당 협의회에서의 정치보고" , 「공산당 연구」, 통

권 116호,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 1988.10)

3, 권 복 경 , "고르바쵸프체제의 소련공산당 개혁" , 「북한」 , 통권 231호 서울 : 북한 연구소 , 1991 . 3

4, 권 금 희 ,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연구" (제주 :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89.2)

,5 김 광 수 , "소련 고르바쵸프 개방정책연구 ", (서울 : 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 연구쎈타 , 1990.2)

6, 김 부 기 , "소련의 감군과 남북한 평화공존 및 군비통제 ", 「통일문제 연구」 , 1권 4호 (서울 : 국토 통일원 , 1989)

7, ____ "소련 동유럽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1990. 11)

8, 김 재 영 , "한.소 수교와 남북관계 : 소련,동구의 변화와 한반도 세미나 보고서,"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1990.)

9, 문 수 인 , "고르바쵸프 세대의 등장 : 소련지도자들의 배경분석" , 「중소연구」, 10권 2호 , (서울: 한당대학교 중소문제 연구소, 1980)

10, 서 병 철 , "변모하는 동유럽국가들과 서방국가간 경제협력", (서울 :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 1991)

11, 신 미 숙 ,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 추진배경에 관한 연구 , (부산 :부산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1)

12,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편 , "최근 소련사태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주요국제문제 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1991.9)

13, 이 상 민 ,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과 전망" , 「국제문제」 , 19권7호, (서울 : 국제문제연구소 , 1988)

14, 이 승 철 , "소련의 경제발전과 경제개혁간의 상관성" , 「중소연구」 , 14권1호, (서울 : 한양대 중소문제연구소 , 1987.5)

15, 이 승 희 , "페레스트로이카의 발전단계" , 「통일문제연구」 , 1권 3호, (서울 : 국토 통일원 , 1989)

16, 조 범 순 ,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 과학연구」 , 제16집, (전주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89)

17, 조 인 석 , "소련사회주의 경제개혁에 관한 고찰" , 「현대사회」 , (서울: 현대사회 연구소, 1988)

18, 지 충 남 ,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에 관한 분석" , (전남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91.8)

19, 최 영 천 , "고르바쵸프 개혁정책에 관한 분석" , (전남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90.2)

(조선일보) 1990년 3월 8일자
1990년 3월 10일자
6월 12일자
7월 13일자
7월 19일자
9월 28일자
10월 20일자
11월 19일자
1991년 3월 10일자
1991년 3월 17일자

(동아일보) 1990년 6월 6일자
1990년 7월 14일자

A b s t r a c t

A study on the Reform Policy of M. S. Gorbachv

Choi Moon Yo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Major in General Administration

At the 1985 Mikhail Gorbachev,a political leader in the Soviet Union, had been reforming fundamentally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which had been sturdy after Lenin with a new eye.

Mikhail Gorbachev made a first target which rebuild a depressed economy andfor this on the one hand domestically push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foward such as Perestroika and Glasnosti, on the other hand concentrated on the domestic reforms and tried to make a favorably external circumstances which was useful to the domestic reforns by the new thinking.

The corest matters in his reforms are economic efficiencies and economic reforms to improve low productivities and to stimulate the developement of the science technologie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target of economic reforms,various socialistic possession styles had to be widely realized such as multilateral possessions for the private ones and equal competetion between various possession styles and denationalization of possessions, so the Soviet Union encoraged a cooperative association in the agriculture and other spheres and revived private usiness,

a contract for work and lease. Enacting the law of lease,possession law and national business law show one side of progress toward market soc-ialism in the socialistic possessions

Gorbachev drived party reforms such as plural candidates,a reforming of the secret vote,accepting a presidential system,introducing a multiparty system and adopting a new platform in the continual economic inactivity,ethnic problems and between the conservities resistance. On the 28th party convention a new platform of the reform was not passed by Gorbachev frustrate a raising of the conservatives in the reorganizati-on of of party's direction committee.

Mikhail Gorbachev grasped the meaning of the reform polies as a re-voution for the nationwide reform and reorganization of the Soviet Union so this have simultaneously two features like " a revolution from the ab-ove " and " a revolution from the below.

Mikhail Gorbachev's reforms tried to graft market and capitalistic economic mechanism to the Soviet Union' planned economy and a natio-nalized socialistic economy is possible to match with various economic models. Nevertheless economic efficiencies, the limitation of the reforms is that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lways control the economic policy decisions.